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의 政治

北韓의 体制的 變數가 權力構造 變化에
미치는 影響
(中共과의 比較)

研究執筆責任

許景九

(略歷)

高麗大學校-政外科 卒業

美하와이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 卒業(政治學博士)

한글알보 記者

高麗大學校-政經大學 助教授(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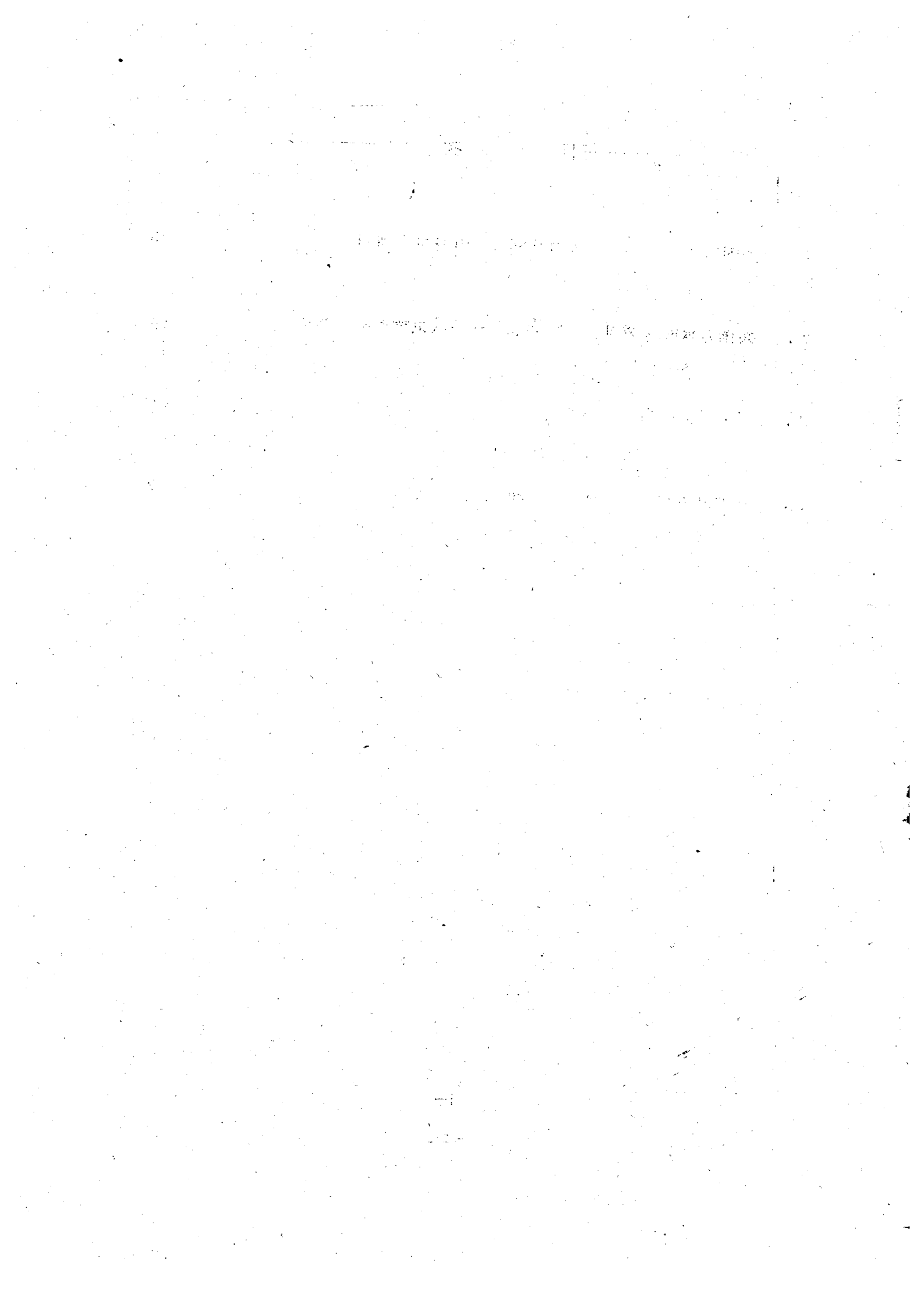
219

刊行責任: 李啓熙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1. 共産国家에 있어서 權力承繼의 몇가지 패턴.....	3
2. 中共權力承繼作業의 試行錯誤 - 毛沢東權威의 浮沈.....	19
3. 毛沢東承繼体制의 特徵.....	32
4. 北韓動員体制의 危機와 承繼危機.....	52



1. 共産国家에서의 權力承繼의 몇가지 패턴

共産国家에서의 權力承繼란 後嗣的 성격을 強하게 띠고 있다.

「後嗣」란 王朝時代의 權力移讓을 표현한 말이지만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無誤謬의 權威는 王朝의 社稷이나 다름없고 權威의 主体인 공산당의 法統의 持續性이 보장된다는 뜻에서 보면 공산국가에서의 後繼者란 王朝時代의 後嗣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엄밀히 말해서 공개적인 경쟁과 挑戰이 排除된 複數主義와 多元主義가 용인되지 않는 마치 密閉된 宮廷에서 이뤄지는 權力의 「讓位」와 다름없다는 말이다. 「讓位」란 權威의 水平的인 관계보다는 位階的인 垂直的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또 權力委任者와 被委任者 사이의 관계가 당연히 從屬的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權力委任者의 恣意와 獨斷이 被委任者를 가려내고 選拔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정치학자들은 흔히 공산국가에서의 權力移讓을 承繼(Succession)라는 用語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역시 後嗣란 말이 풍기는 뉴앙스와 비슷하다.

交替되고 更新되는 프로세스이기 보다는 물려주고 물려받고, 다시 물려주는(Succession Process) 다분히 의도적이고 作為的인 프로세스인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의 權威의 法統性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教條的當爲性의 次元을 떠나 공산국가에서의 承繼過程은 그 자체로서 허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王權의 任意的인 獨斷에 의해서

움직이는 王朝에서조차 王權의 篡奪과 後繼者의 背信이 恒茶飯事로 일어나듯 보다 複合的인 국가통치의 메카니즘과 利益集團; 그리고 훨씬 開明된 국민과 多樣한 국제관계를 유지하자 않을 수 없는 현대의 공산국가에서 권력승계작업이 반드시 쉽게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民主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병폐 즉 社會利益集團의 지나친 集團利益追求나 정치적 후진국에서 頻發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季節的인 交替와 전주어 볼때 공산국가에서의 承繼過程이 民主國家나 政治的 後進國에서의 그것보다 반드시 不安定한 것이냐 하는 데는 論難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산국가에서의 권력승계란 源泉的인 脆弱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국가에서는 政治過程에서 일어나고 있는 自然發生的인 政治의 代謝作用에 의해서 權力의 交替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硬直된 官僚體制와 統治메카니즘을 요구하고 있는 공산국가에서 오히려 承繼過程이 制度的으로 定着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一絲不亂한 統治體系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統治體系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반대로 亂調를 免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逆說的인 矛盾이다. 그러나 공산체제의 속성으로 보아 이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공산국가의 統治體系가 一絲不亂한 것은 統治메카니즘의 能率性이나 웨버가 이르는 官僚制의 合理性에 基因한다기 보다는 이른바 權力의 個人化 또는 人格化(Personalization)¹⁾에 따른 權力의 劃一化나 一元化

에서 연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權力の 人格化란 권력 또는 統治에 카니즘에 內在한 屬性의 작용에 따라 體制가 運用되는 것이 아니고 統治權者의 心性, 意志, 心氣의 變化, 또는 感情의 起伏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에 후계자를 결정하는 데도 이들 요소가 주요 變數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恣意的인 統治에서 생기는 後患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人格화된 權力の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후계자는 必要한 것이다.

이러하면 王朝時代의 世子책 봉과 똑같은 동기와 과정을 밟게 된다. 레닌이즘, 스탈린이즘 또는 毛沢東思想은 그 人格화된 政治權力の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것이다. 後嗣의 性격을 갖는 權力承繼란 權力委任者(the ruler or incumbent)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물려주는 과정이지만 被委任者로서는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물려줄 것을 다시 創造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물려받은 것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否定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갖게 된다. 공산국가의 권력승계가 복잡하고 不安定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레닌이즘과 스탈린이즘이 반드시 相互補完관계에 설 수 없듯이 또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格下運動에서 볼수 있듯이 前任者와 後任者는 서로 相剋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常例다. 이것은 前任者의 權威의 否定없이 後任者가 진실로 独立的인 權威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산국가에서 後繼者로 指名 또는 內定되었던 사람은 다음 11名이다.

불가리아의 Vulko Chervenkov, 소련의 Georgi Malenkov, Leonid

Brezhnev, 폴란드의 Edward Ochab, 유고의 Aleksander Rankovic, 소련의 Fyol Kozlov, 루마니아의 Nicholae Ceausescu, 東獨의 Erich Honecker, 越盟의 Le Duan, 中共의 劉少奇, 林彪.

이상 11名中 2名이 前任者를 背信하여 그들로부터 權力을 奪取했고(브레즈네프와 호네커), 3名이 篡奪누명을 쓰고 逐出되었고(랑코빅, 劉少奇, 林彪), 2名이 前任者의 生存中에 이미 그들의 信任을 잃어버렸다. (말렌코프, 코즐로브) 아마 金日成의 후계로 內定된 金英柱가 다시 그의 아들인 金正一로 바뀐 것은 마지막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른다. 承繼過程을 成功的으로 마친, 것으로 생각되는 나머지 4名(체르벤코브, 오차브, 초우세스쿠, 레·두안)도 레·두안을 빼고 前任者들을 死後背信한 것으로 보아 前任者와 後任者는 相廻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必然的인 相廻관계가 공산국가에서의 承繼過程을 不透明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承繼展望에 對한 不安은 現役의 獨재자들로 하여금 아예 후계자를 暗黙的으로든 明明的으로든 定하지 않게 만들거나(체코의 Klement Gottwald 와 Antonin Novotny, 불가리아의 Chervenkov, 헝가리의 Matyas Rakosi, 폴란드의 Wladyslaw Gomulka) 또는 후루시초프같이 코즐로브에서 브레즈네프로 후계자를 변경하든지 또는 毛沢東처럼 3번이나 후계자를 바꿔치우는 異變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후계자를 定하지 않았다는 것이 共產統治者의 死前이나 死後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정치적 利得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上記 5名中 체코의 고트발트만 제외하고는 다 逐出

의 悲運을 맛보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후계자를 바꾸는 것 역시 후루시초프의 例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 오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²⁾

레닌이나 스탈린도 그 臨終의 狀況에 대해서 異論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毛沢東조차 후계자에 의한 反逆을 겪은 것으로 보아 또는 承繼의 가장 성공적인 例로 꼽히는 루마니아의 Gheorghie Gheorghiu-Dej 와 초우세스쿠의 關係조차 Dej의 死後 초우세스쿠가 비난의 칼을 때든 것으로 보아 前任者들이 의도했던 대로 승계란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산국가에서 어떤 狀況과 條件에서 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승계를 가져 오느냐 하는 승계패턴에 대한 一般論은 그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 理論的인 규명도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承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피델·카스트로의 쿠바와 北韓에서 라울·카스트로와 金正一에 의한 親族後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자못 궁금한 일이다. 그러나 승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 승계의 과정, 승계자체의 패턴에 대해서는 몇가지 理論的인 推定을 내려 볼 수 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공산政權의 歷史와 공산주의 理念과 政治制度를 共有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國際的圈域을 形成하고 있는 共產圈의 국제환경이 승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 즉, 공산국가들 사이의 橫的인 連帶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朝鮮의 衛星國들간의 關係와 衛星國과 宗主國인 蘇聯의 縱的인 關係가 各個의 공산국가들의 승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것은 承繼에 영향을 주는 外因的 變數다. 정치·경제적으로 겨우 엇비슷한 發展段階를 거치고 있는 衛星國들은 좋은 싫든 相互 피할 수 없는 영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衛星國의 한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國內事態는 그 外延的波及으로서 當然히 다른 위성국들에 擴散效果를 갖게 된다. 이를테면 1956年의 헝가리 사태나 1968年체코의 두부체코政權이 몰고온 危機狀況은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軍事的으로는 바르샤바條約, 經濟的으로는 코메콘, 그리고 政治的으로는 공산주의 理念이란 하나의 고리로서 連結되어 있는 東歐의 공산권의 그 자체로서 相互交互的인 規制關係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橫的關係보다는 衛星國들과 宗主國인 소련사이에서 벌어지는 영향관계는 위성국들 사이의 水平的關係보다는 그 역할의 深度를 追跡하고 측정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北韓은 이들 東歐衛星國들과는 일단 地理的으로 떨어져 있고 또 文化的으로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위성국들간의 水平的關係에서 보다는 北韓-소련의 직접적인 垂直關係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後者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照明이 우리에게 더 時急히 요청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컨대 1956年 소련의 20次 全黨大會에서 후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演說後 東歐諸國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고 北韓도 이어서 例外일 수는 없었다. 불가리아의 체르벤코브, 헝가리아의 라코시, 폴랜드의 오차브는 그 餘波로서 失脚되는 悲運을 맞게 되었고 北韓의 金日成의 主体路線도 이때 衛星國-宗主國內의 관계 再設定의 好機를 맞아 統治合理化의 한 수단으로서 강구되었다는 사실을 주의할 必要가 있다.

둘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承繼를 결정짓는 內因的變數다. 이를테면 共產政權이 그나라 固有의 정치·경제적인 必要와 必然性에 의해서 外勢의 영향없이 土着化的 길을 밟은 나라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이나 朝鮮의 직접적인 介入에 의해서 공산국가를 수립한 나라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承繼문제만을 놓고 보면 前者가 後者보다 반드시 承繼過程이 制度化되어 있다든지 安定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위성국들은 朝鮮에서 承繼의 典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성국들이 한들 例外를 매놓고는 거개가 承繼危機를 겪어왔고 朝鮮의 承繼를 지배하고 있는 물이란 특별히 어떤 제도적 속성보다는 지도자의 개성이나 統治方式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土着化나 非土着化에 따라 承繼의 危機와 安全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土着화된 國家는 非土着화된 國家보다 統治者의 執權期間이 훨씬 長期化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뿐이다. (스탈린, 毛沢東, 티토처럼)

반면 헝가리 같은 나라는 라코시, 나지, 게로(Gero) 같은 지도자들의 집권기간이 극히 짧았다. 이것은 土着화된 國家의 지도자가 革命의 長期化에서 비롯된 統治正統性을 가질 수 있었고 위성국의 지도자들은 革命의 日淺性으로 통치의 正統性을 굳힐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 연유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점에서든 革命의 正統性이 없는 金日成은 例外的인 存在다.

또하나 發展論에서 흔히 論議되는 대로 경제와 정치의 관계 즉

경제적으로 先進인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相對적으로 安定되어 있다는 妥當性을 인정한다면 經濟的인 발전단계의 차이점이 承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兩者間에는 큰 차이가 없다. 東歐圈의 先進國인 체코, 東獨 또는 폴란드가 相對적으로 後進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보다 承繼過程이 安定돼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루마니아는 오히려 체코나 폴란드 보다는 承繼危機를 훨씬 덜 겪은 나라다. 정치적으로 共產制度를 먼저 導入하고 定着시킨 국가들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공산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 보다 承繼에 관한 한 더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다.

세째는 承繼危機의 深度나 그 危機의 期間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후계자를 독재자의 死前(Premortem)에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또는 死後(Postmortem)에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후계자를 일찍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또는 독재자의 죽음에 임박해서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다. 이것은 후계자의 指名時期와 독재자의 臨終사이의 기간의 長·短이 承繼過程의 安定與否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다. 후계자를 언제 지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흔히 후계지명은 독재자의 權威의 弱化和 관련되어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또 새로운 權力의 中心部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死後承繼보다는 死前指名에 의한 承繼가 많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나 후계를 지명했던 11개의 事例와 후계를 지명하지 않았던 5개의 事例를 비교해 볼 때 兩者間에는 各各 招來되는 危機狀況에 차이가 있

는 같다. 후계를 지명하지 않았던 노모트니와 라코시 死後의 체코와 헝가리는 「러쉬」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危機」를 맞았고 고트발트와 체르벤코브 死後의 체코와 불가리아는 「輕微한 危機」를 겪은 것으로 되어 있다.³⁾ 후계를 지명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潛在的인 또는 顯在的인 競争者들에 의한 陰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言及한대로 後繼指名을 하지 않은 5名中 (고트발트, 노모트니, 체르벤코브, 라코시, 고물카) 고물카를 제외한 4名이 強制로 逐出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逐出劇의 경우 대개 政敵들의 聯合戰線에 의한 利害의 暫定的인 野合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이 權力의 分配에 合意하기에는 상당기간이 걸리게 되고 또 多數의 競争者에 의한 競争은 事態의 推移를 不透明하게 함으로써 危機를 延長시키는 것이다.

반면 독재자들의 死前에 이뤄지는 후계지명은 흔히 독재자의 基盤잠식을 가져오고 후계자의 挑戰野心을 促發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나 독재자 生前에 기반구축을 소홀히한 후계자는 역시 그의 死後 競争者들로부터 挾攻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공산국가의 承繼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산국가의 독재자가 스스로 좋아서 후계자를 지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強力한 競争者(또는 장차의 후계자)의 登場을 念慮한 나머지 自意半·他意半으로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健康의 惡化같은 身體的인 衰退에 따라 또는 스스로의 권력기반이 弱화되었을 경우 마지 못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탈린은 健康의 惡化로, 毛沢東은 한때 권력기반의 弱화로 후계지명을 강요 당했다. 후계자가 名實相符한 第

二人者로서 充分한 經驗과 權威를 쌓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有利할 것만은 틀림없다. 초우세스쿠는 1965年 Dej가 죽기 10年前부터 후계자로서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말렌코프와 같이 經驗과 기반을 쌓기도 전에 스탈린이 死去함으로써 후계자의 權威를 쉽게 喪失한 경우도 있다.

요컨대 推定後繼者(Heir-Presumptive)에서 確定後繼者(Heir-Apparent)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권위가 必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후계자의 「訓練期間」은 절대 필요한 조건이다.

네째로 독재자는 언제나 權威(Authority)와 權力(Power)을 同時에 具有하고 行使하는 것이 通例다. 그러나 權威와 權力은 相互補完的이면서 그 屬性은 서로 다른 것이다. 權威는 그 자체가 權力을 前提로 하고 있지만 權力이 반드시 權威를 前提로 하지는 않는다. 前者는 보다 自發的이고 모마티브한 制裁와 服從을 前提로 한다면 後者는 그 자체가 強制力을 隨伴한 것이다.

前者가 概念이나 實際에 있어서 보다 추상적·理念的인 領域이라면 後者는 日常的·具體的인 領域이다. 強力한 독재자는 대개의 경우가 이 兩者를 兼全하고 있으며 兩者中 그 어느 것도 잃기를 싫어한다. 이와 같은 독재자를 가졌던 공산국가는 필연적으로 承繼危機를 겪게 된다. 왜냐하면 權威와 權力의 空白이 同時에 생기게 되고 그것은 어떤 기관이나 인물로서 쉽게 代替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章에서 자세히 後述하겠지만 毛沢東은 權威와 權力의 두 領域을 独占하지 않고 權威만을 独占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의 承繼危機를 쉽게 넘긴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후계자 또는 後繼者群이 權力이라는 領域에서 독재자 死後 權威의 領域으로 昇格되는 것은 權威와 權力을 同時에 만들어 내야 하는 후계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공산권의 후계자 문제를 생각하는 데는 극히 複雜하고 多様な 變數群이 作用을 하고 있고 또 그 變數群은 各個 나라들의 狀況과 條件과 相乘作用을 하여 더 複雜하고 多様な 樣相을 보이면서 발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後繼委任者와 被委任者의 개인적인 능력, 性向, 氣質등의 요소가 큰 變數로서 作用하고 있다는 점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例컨대, 後繼委任者 또는 被委任者의 性向이나 氣質이 「카리스마」的이나 또는 理念的이나 아니면 非「카리스마」的이나 또는 非理念的이나에 따라 承繼過程의 危機의 深度 또는 後繼의 定着過程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的이라는 것은 독재자의 統治의 기반 또는 權威나 權力의 質이 이미 하나의 「既存의 正統性」으로 認定되는 경우 또는 日常的인 規範이나 組織이나 枝葉的政策문제에는 超然해 있으면서도 統治의 能率性을 확보할 수 있는 資質을 말한다. 이는 정치적 제네럴리스트로서의 자질이 정치의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자질이 아니다. 非「카리스마」的이라고 할 때는 초적과 보다 具體的인 政策에 沒頭함으로써 統治의 能率性을 확보하는 정치적 스페셜리스트로서의 資質을 말한다. 分析의 軸점을 共產圈의 承繼過程이 어느 경우에 安定된 패턴을 보이고 어느 경우에 不安定한 패턴을 보이느냐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行列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後繼委任者

〔表 1〕

카리스마型 非카리스마型

後繼被委任者

카리스마型

〔Ⅰ〕

〔Ⅱ〕

非카리스마型

〔Ⅲ〕

〔Ⅳ〕

	카리스마型	非카리스마型
後繼被委任者	〔Ⅰ〕	〔Ⅱ〕
	非카리스마型	〔Ⅳ〕

〔表 2〕

理想型 非理想型

理想型

〔Ⅴ〕

〔Ⅵ〕

非理想型

〔Ⅶ〕

〔Ⅷ〕

	理想型	非理想型
理想型	〔Ⅴ〕	〔Ⅵ〕
非理想型	〔Ⅶ〕	〔Ⅷ〕

上記의 行列關係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 -.

〔Ⅰ〕 後繼委任者, 被委任者 양쪽이 모두 카리스마型일 때.

〔Ⅱ〕 後繼委任者는 非카리스마型이고, 被委任者는 카리스마型일 때.

〔Ⅲ〕 後繼委任者는 카리스마型이고 被委任者는 非카리스마型일 때.

〔Ⅳ〕 兩쪽이 모두 非카리스마型일 때.

〔Ⅴ〕 兩쪽이 모두 理想型일 때.

〔Ⅵ〕 後繼委任者는 非理想型, 被委任者는 理想型일 때.

[VII] 後繼委任者는 理想型, 被委任者는 非理想型일 때.

[VIII] 兩쪽이 모두 非理想型일 때.

以上 8개의 類型은 하나의 典範(Ideal Type)으로 만들어 본 것이고 어떤 獨재자 또는 後繼자도 백 퍼센트 카리스마的・理想的이거나 또는 그 반대일 수 없다.

아마 양쪽이 다같이 섞여진 類型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分析의 틀로서는 有用할 수 있다.

上記 8개의 類型을 더 축소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I, V] 後繼委任者, 被委任者가 똑같이 카리스마型, 理想型일 때.

[II, VI] 後繼委任者는 非카리스마型, 非理想型이지만, 被委任者는 카리스마型, 理想型일 경우.

[III, VII] 後繼委任者는 카리스마型, 理想型이지만, 被委任者는 非카리스마型, 非理想型일 경우.

[IV, VIII] 兩쪽이 모두 非카리스마型, 非理想型일 경우.

[I, V] 처럼 양쪽이 카리스마型, 理想型일 경우는 실제로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공산주의국가에 있어서 지도자의 카리스마的 屬性은 지도자 개인의 資質에도 크게 연유하지만 革命이나 執權의 長期化에서 서서히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被委任者의 경우 資質面에서 아무리 카리스마的 屬性이 농후하다 하더라도 執權期間이 짧고 많은 競爭者와의 競合過程에서 이런 資質은 빛을 보지 못하게 마련이다. 카리스마的 後見人은 가질 수는 있으나 카리스마的 後繼人을 갖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

카리스마는 그 자체가 独尊的属性이요 存在지 그것을 누구와 나눠 갖는다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 카리스마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 오기 쉽다. 後見人-後繼人은 兩者가 相互補完의 일 때에만 그 관계가 성립되지만 양쪽이 똑같이 카리스마일 경우 그것은 곧 경쟁과 相衝관계로 變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 II, VI이나 III, VII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훨씬 安定된 承繼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類型이다. 또 後繼過程에서 생기는 危機도 덜할 것으로 본다. 서로 相異한 資質은 排他的일 수 있지만 相互 補完·補充관계를 이루는 예가 더 많다.

III, VII의 경우는 毛沢東, 劉少奇의 예에 해당될 것이다. 실제로 中共에서 毛·劉라인으로 承繼作業이 굳어졌을 경우 中共은 훨씬 安定된 포스트·마오時代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毛沢東·華国鋒라인도 이 類型에 속한다.

IV, VIII의 경우 거의 모든 東歐圈의 승계패턴이 이 類型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代表的인 예가 루마니아의 Dej-Ceausescu, 東獨의 Ulbricht-Honecker의 경우를 들 수 있다.

承繼過程이 制度化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實務的 傾向, 理念보다는 구체적인 政策 또는 組織定向(Organization-oriented)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制度化 以前에는 初期 東歐國家의 例에서 보듯 後繼競爭의 領域이 넓어짐으로 해서 陰謀와 聯合戰線의 形成 또는 外部勢力(主로는 朝鮮)의 介入에 의해서 結末을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서 言及했지만 사실 衛星國의 承繼過程에는 宗主國인 朝鮮의 印

이 절대적이었던 때도 있었다. 스탈린은 그의 生存時 金日成을 포함, 거의 모든 위성국의 統治者들을 스스로 選定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의 영향력은 아직도 또 장차에도 위성국의 후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조선에 스탈린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위성국에도 똑같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티토처럼) 둘의 관계는 유고의 예에 보듯 斷絶되는 사태에까지 이른다. 이것은 中·蘇의 관계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선의 경우 無制限에 가까운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 緩和된 또는 制限된 類型의 리더십이 있을 경우(브레즈네프처럼), 또는 弱화된 集團指導體制가 있을 경우(스탈린死後처럼) 위성국에 대한 영향력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위성국에도 3가지 類型의 똑같은 리더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선-위성국의 영향의 흐름은 雙方에 存在하는 리더십의 強·弱의 力学關係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 相互의 영향관계를 行列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宗主國 (조선)		
		強力한 리더십	制限된 리더십	弱화된 集團지도제
衛 星 國	強力한 리더십	I	II	III
	制限된 리더십	IV	V	VI
	弱화된 集團 지도제	VII	VIII	IX

以上 9개의 관계에서 I, III, VII처럼 소련과 衛星국의 영향관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實證的인 事例를 발견하기 어렵다. I은 극단적인 相輔관계, III과 VII은 衛星국과 소련이 各各 強勢와 弱勢를 相對的으로 維持할 수 있을 때이다. 소련-北韓의 경우는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利益관계의 變化에 따라 偏向的인 態度를 取함으로써 그 영향관계가 더 複雜해 질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政策路線의 独自の追求나 후계 과정에서 東歐圈보다는 外勢의 영향력을 덜 받을 수도 있으나 東歐圈과는 달리 中共과 소련이라는 두 宗主國으로부터 同時에 壓力을 받을 경우도 想定해 볼 수 있다.

공산국가의 후계 과정을 연구하는 데는 아직도 구체적인 데이터 면에서나 또는 理論的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分析은 共產圈의 承繼過程을 理論化시키는 하나의 試論으로서 의도해본 것이다. 이러한 理論에 구체적인 事例를 하나 하나 짚어 맞출 수는 없으나 우리의 分析의 視野를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러한 理論에 기초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事例 즉 中共의 承繼過程을 追跡해 보고자 한다.

2. 中共權力承繼作業의 試行錯誤

—毛沢東權威의 浮沈—

中共에서의 後繼者問題는 대체로 毛沢東의 權威의 浮沈과 그 軌를 같이하여 進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毛의 權威가 理念的인 路線의 設定이나 政策決定에 있어 絶對적인 影響力을 행사할 때는 後繼問題는 潛跡해 버리지만 毛가 設定한 理念이나 政策이 좋지않은 結果를 가져왔거나 失敗했을 경우, 그리고 그 結果로 그의 權威에 증대한 타격이 가해졌을 때 後繼問題는 現實的인 問題로 浮上하곤 했다.

다시 말하면 毛權威와 後繼者問題는 密接한 關聯을 맺고있으나 그 兩者間의 浮沈關係는 逆相關關係를 맺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1959년 4월 27일 人民代表大會에서 劉少奇가 國家主席으로 當選되었을 때 毛가 推進했던 大躍進運動에 대한 引責의 냄새를 짚게 품었고 사실 이때 毛는 그가 좋아해서 國家主席자리를 劉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 또 1969년 1월 8일 黨規約草案에는 國防相 林彪를 毛主席의 가장 親愛하는 戰友요 後繼者로 삼는다는 것을 明文化했고 이 草案은 4월 1일에 열린 第九次 全黨大會에서 正식으로 承認을 받았는데 이때도 文化革命期間中 상당한 勢力基盤을 쌓아왔던 林彪에 대한 양보의 뜻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林彪가 나중에 周恩來를 제치고 國家主席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毛沢東이 이를 반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林彪는 黨主席자리를 毛의 손에 남겨두고 자기는 劉少奇 肅清以來

空席으로 남아있던 國家主席자리를 차지함으로써 毛와 더불어 黨과 政府의 分割占拠를 피한 셈인데 이것이 失敗하고 말았다. 毛가 林을 얼마만큼 後繼者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毛는 1965년과 1970년 두차례 그의 延安시절부터의 親友인 에드가·스노우를 만났을 때도 「곧 하느님을 만나보러 가겠다」는 말을 되뇌곤 했지만 毛가 이때도 정말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한말 같지는 않다. 그만큼 그는 생애의 집착이 컸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後繼者에게 모든 것을 내줄만큼 權力에 대한 그의 意志가 衰退했던 것은 아니었다.

毛가 後繼者가 必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니 毛가 後繼者를 必要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後繼者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毛의 必要性을 점차로 덜 느끼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毛沢東은 1949년 共產政權수립과 동시에 黨主席과 國家主席자리를 兼任함으로써 사실상의 1人者로 군림하게 되었다.

1950年代初 中共黨은 여러면에서 指導層의 높은 團結을 과시한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後日의 심각한 分裂과 指導者들간의 길은 反目과 疾視를 생각해 볼때 그러하다. 그러나 이때도 異見과 分裂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毛沢東과 劉少奇 등 다른 幹部들과의 政策異見은 初級合作社의 結成進도를 싸고 1950年代 초반부터 있어왔고 1954-55年間に 있었던 高崗과 饒瀨石의 肅清劇은 毛의 後繼자리를 노려서 벌어졌던 본격적인 싸움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다. 毛는 1950年代初에도 두갈래의 勢力과 對立狀

態에 있었다. 한 갈래는 統治權力の 分散을 피하면서 高崗 등을 中心으로 東北地方에 「獨立王國」을 세우고 있던 勢力과의 對立이요, 또 다른 갈래는 毛의 急進的인 政策 특히 農業政策에 反對하여 革命의 계속보다는 守成을 주장하는 穩健官僚派와의 對立이었다. 前者의 地方分權主義的 傾向과 後者の 反革命的인 現狀維持路線은 強力한 中央集權的 統治下에 共產黨의 權威를 確立하고 中國을 統一한 餘勢를 몰아 社會主義革命에 拍車를 加하려던 毛에게는 다 못마땅한 일이었다.

毛는 指導體制 내에서나 政策路線에 있어서 다른 指導者들과 차츰 거리가 멀어짐을 느꼈을 것이고 사실 1950年代初의 中共에서는 이미 毛의 權威를 如何한 方法으로도 牽制해 보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阿片戰爭 이래 100年이상의 內亂과 革命의 소용돌이를 겪어온 中國은 建國後 무엇보다도 安定과 秩序를 必要로 하고 있었지만 毛는 革命의 結實을 굳혀나가기 보다는 더욱 새로운 革命을 創造하겠다는 熱意에 불타 있었다. 이러한 毛의 態度를 牽制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劉少奇를 포함한 대부분 中央과 地方 指導者들의 意見이었다. 특히 地方指導者들은 土地改革으로 農民에게 分配한 땅을 다시 沒收하여 共同所有로 하자는 毛의 政策에는 積極적으로 反對하고 있었다.

國家副主席과 黨副主席으로 있던 劉少奇가 일단은 後繼線上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었지만 人民解放軍 總司令으로 있던 朱德도 「主席」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事態가 그대로만 進行되었더라면 毛는 아마도 後繼志望生들의 聯合戰線에 몰려 孤立을

免치 못했을런지 모른다. 그런데 이때 高-饒事件이 터졌다. 高崗은 1953년에 設置된 國家計劃委員會의 初代主任으로 第1次 5個年計劃을 推進할 最高위 政策實務責任者였고 그는 그 이전에는 東北地區의 實質上의 一人者 노릇을 하던 強者였다. 한편 饒는 華東地區의 軍政委主席과 黨組織部長의 經歷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1953年 饒 밑에서 華東軍政委 副主席의 자리에 있던 譚震林이 主動이 되어 毛主席이 「休息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公開書翰을 毛에게 보낸 사건이 일어났다. 이 편지 보내는 일에 主動이 되었던 一團의 사람들은 高崗 등에게도 協力을 要請하는 한편 高도 이에 積極呼応, 首相이나 黨副主席 또는 黨總書記자리가 確保된다면 協力하겠다는 言質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이 毛에게는 다시 黨內指導權을 確立하기 위한 절호의 杼機로 포착되었다. 우선 분명하게 저질러진 反黨行爲를 究詰하여 지나치게 強大해진 政敵들을 하나하나 滅絶하고 몰아칠 수 있는 機會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高崗은 劉少奇, 周恩來 등에게도 하나의 威脅적인 存在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 사건에 關한한 毛는 友軍을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로였다. 毛-高間의 不和는 어디서 緣유하는 것이었는가? 서만교수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충돌 외에도 經濟戰略, 政府·黨機構에의 運營에 대한 根本적인 異見이 있었다고 말한다.⁴⁾

어쨌든 1955年 4月 當時 黨秘書長으로 拔擢된 鄧小平의 報告에 기초하여 高-饒 두 사람에게 滿洲를 獨立王國으로 구축하여 黨權을 奪取하려 했다는 罪名으로 肅清해 버렸다. 그들과 더불어 다른 7名의 幹部들(張秀山, 張明遠, 趙德尊, 馬洪, 郭峯, 陳伯村, 向

明)도 肅清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가 高崗 휘하의 사람들이었다. 毛는 이 사건으로 다시한번 그의 權威를 再確認하였고 1955년에는 高級合作社運動을 強力迅速히 推進하라는 指示를 내리면서 一部の 黨幹部들의 우유부단한 態度를 「纏足을 한 女人네들처럼 졸랑 거린다」는 비난을 퍼부을 수 있었다.

1945년 七全大會서는 毛沢東思想이 맑시즘-레닌이름과 같은 班列에 들어 黨의 公式的인 指導理念으로 黨憲에 収録되도록 採択된 바 있다. 그리고 土地改革, 初級合作社(1953), 高級合作社(1955)와 高-饒의 「反黨」分子들을 肅清하는데 있어서 毛의 發言權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後繼競爭者들의 反毛挾攻作戰도 일단 수그러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毛의 權威는 1956年 2月 蘇聯의 20次全黨大會에서의 후르시초프 연설후 크게 挑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호」의 연설요지는 스탈린의 個人崇拜思想에 痛擊을 加하는 것이었고 世界共產主義運動의 支柱노릇을 해온 스탈린神話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호」의 연설이 어떤 衝擊波를 가져왔는지는 東歐에서 거의 連鎖的인 政權交替波動이 일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스탈린의 好意로 또는 그의 비호하에 共產獨裁者가 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떨어져 나갔다. 폴란드에서는 Boleslaw Bierut에서 Edward Ochab로, 불가리에서는 Chervenkov에서 Chivkov로 바뀌었다. 더구나 헝가리에서는 共產國家에서는 類例가 없는 承繼危機가 뒤따르게 되었는데 1956年 10月24日 라코시 대신 Erno Gero가 黨第一書記로 黨中央委에서 選出된지 불과 몇 시간

후에는 Gero가 전복되고 Ganos Kadar로 바뀌는事態를 몰고왔다. 이것은 Gero選出後 바로 몇 시간전에 到着한 미끄얄과 슐로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5)

中共黨도 蘇聯의 20次 全党大會에는 朱德을 團長으로하는 代表團을 보낸바 있고 「호」의 연설이 暗示하는바를 捕捉하는데 오랜 時間이 걸리지 않았다. 中共黨은 「호」의 연설이 있는지 두달도 못되는 4월에 政治局擴大會議에서 最小限의 毛의 名譽와 中共黨의 名譽를 살리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1945年の 黨憲을 修正하는 일이었다. 이 黨憲修正에는 ①毛沢東思想을 黨의 指導理念으로 만든다는 條項이 削除되고 ②어떤 사람도 잘못과 失手를 저지룰 수 있다는 條項이 添加되고 ③모든 重要한 問題는 集團적으로 合意, 決定되어야 한다는 條項이 追加되었다. 6) 이러한 黨憲修正은 그해 9월에 열린 八全大會에서 承認을 얻은바 되었다. 이때의 黨憲修正에는 黨主席이 黨書記局의 主席職도 兼任한다는 條項이 잘려 나가고 黨總書記라는 새로운 職責이 創設되었는데 바로 第1代 總書記에 選出된 사람이 鄧小平이었다. 毛와 鄧사이의 오랜 反目的 씨는 이미 이때부터 뿌러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 黨憲은 毛에게서 相當한 實權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超越的 領導者로서의 權威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때 4명의 黨副主席 즉 劉少奇, 周恩來, 朱德, 陳雲이 選出되었다. 毛가 八全大會 당시 얼마나 牽制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두가지 事實 즉 1954年 國務院의 組織改編으로 彭德懷가 國防相에 任命됨에 따라 朱德은 軍總司令이란 職責에서 解任당하는

바 되었고 이것이 그의 黨主席자리에 대한 野心을 制御하기 위한 毛의 策略과 無關하지 않았는데 八全大會에서 副主席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다른 사실은 毛의 가장 심복부하인 康生이 政治局員 자리에서 政治局候補委員으로 左遷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이미 앞서 毛沢東의 權威와 後繼者問題는 逆相關關係를 맺고 있다고 했지만(다시 말해서 毛의 權威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後繼者問題는 보다 現實的인 問題로 浮刻되고 그의 權威가 높아지면 질수록 後繼問題는 潛跡하는 現象) 毛는 그의 權威가 떨어질 때마다 언제나 政治의 領域, 活動의 領域을 넓힘으로써 그 失墜된 權威를 回復하는 手段으로 삼는 長技를 보여줬다. 보다 密閉된 政治局레벨이나 中央政治의 무대에서 活動의 領域을 地方으로 넓힐 뿐만 아니라 그의 權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鬭爭對象을 提供함으로써 스스로의 保身策을 마련한다. 그 혼자 힘이나 자기 심복부하의 힘으로 正面衝突하지 않고 挑戰者들에게 새로운 競爭狀態를 만들어 준다. 以夷制夷라고나 할까? 또 毛는 언제나 政策問題에서 그의 政敵들보다 한발 앞서 機先을 制함으로써 挑戰者들을 圧倒한다. 1956-1958年間の 狀況이 이러한 毛의 策略을 잘 反映해 준다. 한마디로 蘇聯에서 흐르시쇼프의 登場과 스탈린 格下運動, 그리고 모에 따른 衝擊의 波長은 毛沢東에게도 심각한 危機로서 물려오고 있었다. 八全大會에서 그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冷待를 받았다. 黨憲修正에는 名譽主席이라는 글자 그대로 名譽職이 中共黨史上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毛沢東의 명예로운 隱退를 위해 만들어놓은 陷穽이었다.

黨幹部들이 터놓고 말만하지 않았을 뿐 스탈린 꼴이 되고싶지 않거든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노골적인 요구나 다름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毛는 이때 벌써 65세의 夕陽길에 접어든 老人이었다. 그에게 다시 時流의 大勢를 거역할만한 용기가 있을 것인가? 名譽主席으로서의 安樂한 老後를 마다하고 危險한 結果를 가져올지도 모를 高집을 부릴 것인가? 젊은 後繼者들과 對立을 繼續할 것인가? 사실 말이 젊은 後繼者들이지 劉少奇와 周恩來는 毛보다 꼭 5살 아래로서 그들자신 초조한 심경에 사로잡힐만한 나이였다. 毛는 여기서 大勢를 逆轉시킬만한 一聯의 路線鬭爭과 政策들을 案出해 내는데 그것이 「百花齊放·百家爭鳴」운동, 「反友派鬭爭」, 또는 「三面紅旗運動」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여러 가지 運動은 그들 나름대로 각각의 目的을 가지고 展開되었으나 한가지 공통되는 것은 毛가 그 모든 運動을 發端시켰다는 것이요, 또 자신의 失墜된 權威를 回復시키는 手段으로서 利用하였다는 사실이다. 毛는 이미 1956年 4月 한 地方幹部들과의 會合에서 政黨이 없어질 때까지는 多黨制를 갖는 것이 좋으며 合理的인 意見이면 누가 그것을 말하든 받아들여야 하며 또 民主諸政派의 人士들은 그들의 意見을 自由로이 開陳함으로써 共產黨과 더불어 「長期共存」하고 「相互監督」하자는 演說을 하고 한달後인 5月에는 最高國務會議에서 이를 다시 強調하였다.

「흐」의 演說이 促發한 東歐에서의 自由化運動, 個人崇拜思想의 排斥이 未久에 자신에게 가져올 의미를 누구보다도 빨리 捕捉한

것이 毛자신이였다. 政敵들이 그 問題를 拳論하기 전에 毛가 먼저
 그 問題를 들고나온 것이다. 1956年 10月에는 저 유명한 항가
 리暴動이 일어났으니까 毛의 豫測은 的중한 셈이었다. 그리고 東歐
 에서 그때까지의 모든 執權者들이 가을 바람의 落葉처럼 떨어져나
 간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毛는 健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몰아내려는 또는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政敵들을 오히려 守勢에 몰
 리게하는 大反擊을 加했다. 그해 여름 毛는 楊子江에서 그 유명
 한 游泳을 즐기면서 그의 健康을 萬天下에 과시했는데 이것은 毛
 가 隱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內外에 明明白白히 밝힌 사
 건이었다. 그리고 毛는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翌年(1957)
 2月에는 「人民內部の 矛盾을 올바르게 處理하는 問題에 대하여」라
 는 연설을 하게되는데 이 연설에서 毛는 共產主義社會에서도 矛盾
 이 存在한다는 사실을 認定하고 있다. 즉 毛는 共產主義社會에서
 도 「…政府와 人民, 國家의 利益과 個人의 利益… 領導者와 領導
 를 받는자들 사이에 矛盾이 存在한다」⁷⁾고 말하고 人民內部的 矛
 盾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非敵對的인 說得과 對話가 필요하지만
 「人民과 敵對의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敵對的인 힘의 行使
 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共產主義社會에서도 多種多樣한
 矛盾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러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人
 民에게는 民主主義를, 그리고 反動分子들에게는 獨裁를 해야한다는
 것이 毛연설의 要旨였다. 毛가 이 연설로 노린 効果는 여러가지
 가 있겠지만 이때의 狀況으로 보아 두가지 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스탈린 格下運動으로 派生된 共產圈의 自由化 물결을

일단 不可避한 것으로 認定하고 그 물결의 餘波를 毛沢東類의 矛盾概念으로 受容하면서도 동시에 최소한도로 줄여보자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毛가 스스로에게 다가온 불길을 中共党 全体에게 돌린셈이나 마찬가지다. 自由化의 불길은 毛라는 個人에게서 中共党的 幹部들이라는 集團으로 옮겨간 것이다. 東歐에서의 自由化運動이 独裁者를 몰아내는데 그치고 共產政權이나 共產党 自体에 대해서는 화살을 겨냥하지 못한 반면 中共에서는 非難의 초점이 毛個人보다는 共產党和 人民, 政府和 人民, 領導者和 人民이라는 보다 包括的인 矛盾關係에 集中되었는데 이것은 勿論 毛가 巧妙하게 事態를 그렇게 되도록 물고갔기 때문이다. 毛의 政敵들은 이런 면에서도 毛의 敵手가 아니었다.

둘째는 政策決定, 그 推進의 機先을 制함으로써 자기의 効用價值를 極大化시키자는 것. 毛는 이 두가지 目的에 다 成功함으로써 그의 權威를 回復하는데 成功했고 毛의 말대로 毛를 「生仏로 만들려는 企圖」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八全大會서 半公開的으로 推進되었던 毛의 隱退工作은 毛의 猛烈한 反擊에 따라 潛跡하는듯 했으나 毛가 渾身の 힘을 기울여 推進했던 三面紅旗運動(社會主義總路線, 大躍進, 人民公社)이 支離滅裂, 돌이킬 수 없는 大失敗로 돌아가자 다시 表面化되기 시작했다. 毛는 다시 그의 權威에 중대한 挑戰을 맞게 되었고 그 結果는 1958年 12月 國家主席 자리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이듬해 4月 國家主席 자리는 劉少奇에게로 돌아갔고 劉는 國防委員會主席 자리까지 兼任하게 되는 莫強한 實力者로 浮上했다. 劉는

이제 단순한 推定後繼者가 아니라 確定後繼者로 完全히 올라선 듯 했다. 毛는 國家主席자리만 내 놓았을 뿐 黨主席자리는 지키고 있었으니까 毛의 權力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殘命이 남아 있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毛의 第二의 反擊은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1954-55年의 高-饒사건때처럼 이번에도 毛로서는 反擊의 資料로 삼을 수 있는 또다른 구실을 얻게 되었는데, 그 구실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아닌 國防相인 彭德懷였다. 彭은 1959年 4月24日부터 6月2日까지 東歐各國을 巡訪하고 돌아오자 八月에 廬山에서 열린 八全大會 八中全會에서 毛沢東의 無謀한 經濟政策을 公開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는 軍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蘇聯과의 友好的인 同盟關係를 持續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東歐巡訪中에는 후르시초프를 만나보고 毛의 政策을 非難한 것으로 알려졌다. 彭은 獨立不羈의 武骨로서 八中全會의 代表들에게 毛의 人民公社와 大躍進運動을 공격하는 意見書를 配布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彭은 私席에서도 匈牙利사건과 같은 民衆蜂起가 일어나도 人民解放軍은 介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한다.

이때의 狀況으로 보아 劉少奇 등의 幹部들이 彭과 步調를 취해 毛를 공격했다면 中共에서의 後繼問題는 진작 결판이 났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劉 등은 彭의 意見에 全적으로 共感하면서도 彭을 편들지는 않았다. 毛를 더 자극하지 않고 그의 体面을 살려 주되 서서히 말썹없이 그를 물려서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였을런지 모른다. 어쨌든 이 사건은 毛의 体面을 살리는 선

으로 낙착되었고 親蘇派인 張聞天(外交部副部長)과 彭의 直系部下인 黃克誠(軍總參謀長·國防部副部長), 洪學智(軍總後軍部部長), 周小舟(湖南省委員會 第一書記) 등이 肅清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彭의 敗北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毛가 勝利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毛가 推進해 왔던 一連의 政策들은 이제 거의 拋棄狀態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人民公社가 解体된 다든지 自留地가 復活된 다든지 市場機能이 強化되어 自由로운 流通秩序가 回復되기도 했고 「능력에 따라, 必要에 따라」 生必需品을 供給받는다든 毛의 유토피아니즘은 이제 한낱 웃음거리로 밖에 취급되지 않았다.

특히 彭真鸞下的 北京市黨은 完全 反毛沢東人士들로 가득차 있었다. 彭真이 黨書記局的 有力幹部로 鄧小平 등과 切親한 사이인 것을 볼때 毛를 겨냥한 勢力이 누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北京副市長인 吳陰을 중심으로 「三家村그룹」을 형성하고 있던 鄧拓과 廖沫沙 등은 三家村札記를 北京市黨 기관지에 連載하면서 「偉대한 空言」이라는 풍자수필을 통해 毛의 虛張盛勢를 비웃었다. 吳陰은 또 毛를 惡德君主로, 彭德懷를 善政을 베푸는 官吏로 비유하는 「海瑞罷官」이란 史劇을 써서 毛를 한낱 조롱거리로 삼은적도 있다. 사실상 이때의 中共의 權力은 劉少奇, 鄧小平, 彭真, 周恩來 등 몇몇 黨僚와 國務院幹部들의 掌中에 있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毛로서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試鍊을 겪고 있었고 그에게는

서서히 權力の 終末이 다가오는듯 했다. 毛의 後繼者는 이제 劉少奇로 굳어지는듯 했다. 毛가 나중에 「그들은 나를 葬禮式에서 죽은 父母 다루듯 했다」든지 「鄧小平은 1961年 이래 나에게 黨務조차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불평을 한 것으로 보아 毛가 이 시절 깊은 좌절의 늪속에 빠져있었고 그의 競爭者들은 반대로 活潑한 權力移讓作業을 벌이고 있었다.

毛가 1962年 再起的 꿈을 다지면서 文化革命으로 乾坤一擲, 反對派들에게 決定的인 匕首를 뽑아들기까지는 하나의 긴 忍苦와 困苦의 날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毛는 文革期間中인 1968年 10월에 있었던 八全大會의 12次 中央委員會 全体會議에서 劉少奇를 「黨內외의 모든 職責에서 추방한다」는 黨의 決議를 얻어 내는데 成功함으로써 일단 毛와 反對派들의 싸움은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劉는 文革期間中 大衆集會에서의 自己批判, 序列降等 등의 지루하고 모욕적인 과정을 거쳐 드디어는 쫓겨나는 悲運을 맛보게 되는데 毛로서는 철저한 復讐劇을 벌인 셈이다.

毛沢東이 後嗣問題를 어느정도 자신의 選擇權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毛는 오히려 後繼者를 내지 않겠다는 싸움을 벌여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毛의 이 긴 싸움의 內容은 당연히 그의 後嗣決定計劃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強力한 後繼者는 獨裁者 生前에는 하나의 威脅이 되고 懦弱한 後繼者는 獨裁者 死後에 承繼할 能力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毛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3. 毛沢東의 承繼体制의 特徵

후계자문제에 관한 毛沢東처럼 허다한 迂餘曲折과 試行錯誤를 겪은 사람도 없다. 源泉的으로 그 원인은 毛가 世界歷史上 類例 없는 長期執權의 경력을 누렸다는데 있는지 모른다. 政治의 領域이란 필연적으로 競爭을 隨伴하는 것이고 그 競爭이란 嚴格히 말해서 權力에 대한 鬪爭인 것이다. 毛는 따라서 그 權力鬪爭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에 따른 曲折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일 수 밖에 없다. 毛가 權力鬪爭에서 결과적으로 항상 勝者로 浮刻될 수 있었던 것은 勿論 그의 지도자로서의 타고난 天性和 資質에도 깊이 연유하겠지만 주로는 세가지의 각각 다른 그러나 連關的인 요소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毛는 무엇보다도 理想的으로 다른 지도자들을 壓倒할 수 있었다. 이것은 毛가 그의 政敵들보다 한수 앞서서 事態를 붙잡아는 政治的인 洞察力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공산주의는 이미 하나의 定해진 進路를 向해서 不斷히 前進한다는 歷史的公式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의 世界 공산주의에서 보듯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스스로 設定한 理念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全体主義的 官僚体制의 硬直된 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毛처럼 자기 스스로가 建設해 놓은 權威의 牙城을 스스로의 힘으로 때려 부순다는 것은 공산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破壞된 牙城위에 더 큰 權威의 城을 세울 수 있었다는데 毛沢東의 奇異한 카리스마의 힘이 있는지 모른다.

毛가 단순한 理想主義者였다면 아마 트로츠키 정도의 革命家로 轉落했을 것이다. 단순한 理想主義者나 剛直한 理念主義者는 흔히 革命段階에서 大衆을 끌어모으는 선동가나 革命을 嚮導하는 機能을 發揮하나 革命의 성과를 다지고 지켜나가는데는 失敗하는 경우가 많다.

毛는 「政治權力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輿論을 일으키고 理念的인 分野에서의 作業을 해야 한다」⁸⁾는 말을 했지만 모래알 같은 군중들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을 毛는 그의 群衆路線으로 集約해 놓았다. 그러나 毛는 理念을 언제나 구체적인 政策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여기 毛가 성공한 둘째의 요인이 있다. 毛에게 있어 추상적인 理念과 具體的인 現實의 政策은 相互補完的인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다. 毛에게 理念이란 그 자체가 目的은 아니고 手段과 目的이란 두가지 機能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具體的인 內容을 갖지않는 理念이란 하나의 空疎한 理論에 지나지않고 또 理念的인 뒷받침을 받지않는 政策이란 俗惡한 브르좌의 멘테리티의 所産이란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毛는 權力鬭爭을 政策對決로 轉換시키는 드문 재수를 가지고 있었다. 政策이란 外皮로 둘러친 權力鬭爭은 그 鬭爭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名分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權力鬭爭의 赤裸裸하고 추악한 裏面을 드러내놓지 않아도 된다. 毛의 權力鬭爭이 대부분 理念鬭爭으로 粉飾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名分을 내세운 鬭爭에서는 毛가 언제나 승리하게 마련이었다. 이것은 그가 現實主義者인 同時에 理想主義者였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의 政敵들은

대부분 理想主義者였거나 現實主義者였거나 어느 한쪽이었지 두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毛가 양날(刀)을 가진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면 그의 政敵들은 그 한면만 쓸 수밖에 없었다. 毛가 그의 政敵들의 挑戰으로 權威가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政策을 들고 나오는 것도 따라서 당연한 일이었다.

도크·바넬트는 毛의 權威의 浮沈현상을 特別로 나뉘 1945년에는 上昇→1949년에는 下降→1950年代 上半期에는 上昇→1956년에는 下降→1958년에는 上昇→1960 - 61년에는 下降→1962년에는 上昇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⁹⁾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했거니와 毛가 새로이 政策을 내세우거나 그 政策이 성공한 때는 毛의 權威가 上昇氣流를 타는 때이고 그것이 失敗하든지 나쁜 결과를 가져온 때는 그의 權威가 下降氣流를 타는 때이다. 1945년에는 毛가 1942년부터 시작한 整風運動이 그 實을 거두고 다시 國府軍과의 內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 때이고 1950年代 上半期는 그가 土地改革, 初級合作社를 추진하던 시기고 1958年은 大躍進, 人民公社를, 1962년에는 社會主義教育運動을 추진하던 때이다.

1965년부터 毛의 權威가 急上昇, 個人崇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文化革命이라는 지극히 理念的인 大衆運動을 그의 힘으로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毛의 權威가 下降하는 때는 安定과 秩序와 各種運動의 失敗로 생겨난 弊와 禍를 修하고 補하는 기간이므로 이때는 자연히 현상유지를 더 重하게 생각하는 劉少奇 등의 黨僚와 官僚들이 더 得勢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이 得勢하는 만

큼 毛의 權威는 떨어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劉少奇가 한때 中共의 發展패턴을 말안장(馬鞍)과 같은 U형이라고 비꼰 것도 毛의 의도를 看破한 말인지도 모른다. 사실은 U형 패턴이 아니고 W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劉가 U형이라고 한 것은 文化革命을 豫測하지 못한 希望的 觀測이었다. 어쨌든 理念의 뒷받침을 받는 政策, 政策의 뒷받침을 받은 理念은 毛沢東의 重要한 武器였다.

또 毛는 理念이나 政策을 훨씬 넓은 領域 즉 政治를 水平的인 레벨에서 幹部들에게 局限시키지 않고 垂直的으로 上·下 貫通하는 大衆의 政治, 公衆의 政治로 끌어 내렸다. 이것은 물론 毛가 中共政治에 民主主義的인 方式을 導入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公衆의 힘을 政治에 끌어 들였다는 뜻이다. 다른 의미에서 毛는 현대 全体主義의 性격을 잘 把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造反有理」라는 文革의 구호는 최종적으로 權力의 向方이 大衆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象徴的으로 나타낸 말이다.

毛의 이러한 政治作用은 東歐나 蘇聯 그리고 北韓에서 일어나고 있는 權力鬭爭의 樣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 왔다.

毛는 이상 세가지 요소, 理念, 政策, 大衆 세가지를 必要에 따라 잘 配合해서 요리할 줄 알았다.

中共에서의 後繼問題는 文化革命을 分岐點으로하여 그 性격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文革을 시작하면서부터 毛에게는 前例없던 個人崇拜에 따른 神格化 현상이 일어난다. 둘째는 1971年 林彪의 反逆事件에도 不拘하고 文革後에는 後繼問題는 온전히 毛의 意志에 의해서 左右되는 樣相을 띤다. 셋째는 權力鬭爭이 보다 노골적인

樣態를 떠먼서 承繼權을 念頭에 둔 派閥의 離合集散이 보다 뚜렷하게 表面化된다. 적어도 1969年의 九全大會와 1973年의 十全大會, 그리고 1977年 毛死後 열린 11全大會에서의 權力分布는 承繼를 분명히 생각하고 짚 자리의 按配요 布石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毛는 黨의 進路를 결정하고 政策의 大綱을 定하고 方向을 設定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런일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다. 이를테면 建築으로 말하면 그는 設計士지 現場監督은 아니었다. 毛는 戰術의 能手라기 보다는 戰略의 名手였다. 그는 政策實行의 구석구석을 돌아 보면서 확인하고 叱咤하지 않아도 그의 權威를 지킬만큼 충분한 權威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공산국가 지도자들은 거개가 權威의 分配者로서만은 만족하지 않는다. 權威를 分配하는 役割과 實行하는 두가지 機能을 다 独占함으로써만 만족을 취하는 것이 常例다. 安定된 權力承繼를 위해서도 두 기능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 독점되기 보다는 分散되어 행사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두 機能을 独占하고 있던 超越者가 사라지고 나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權威의 空白이 생기게 마련이다. 반면 權威의 分配者와 實行者가 區別되어 있는 공산국가에서의 權力承繼의 위기란 흔히 새로운 後繼者가 權威의 分配者와 實行者라는 두가지 機能과 속성을 동시에 創出해 내는 힘겨운 役割을 부여받는데서 주로 연유하는 것이다. 中共의 경우 이 두가지 機能은 처음부터 確然히 나뉘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毛沢東에게 후계자문제에 대한 危機가 있었다면 그것은

權威의 實行者 그것으로서만 만족하지 않고 毛의 權威의 独占領域인 分配者로서의 役割까지 뺏으려고 하는데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劉少奇와 林彪는 權威의 實行者로서 權威의 分配機能까지를 넘보다가 終局에는 實行者로서의 機能까지 박탈당한 셈이다.

共產國家의 安定된 承繼는 理想的으로 말한다면 後繼者가 權威의 實行者의 機能에서 分配者의 機能으로의 移行役割만을 부여받았을 때 가장 쉽게 이뤄질 수 있다. 毛沢東도 이 問題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文革이 한창 進行中이었던 1966年 10月 25日에 열렸던 中央工作會議에서 毛는 「원래 국가안보와 스탈린의 (承繼)와 관련하여 일은 교훈때문에...나는 二線에 머물렀고 다른 同志들은 一線에 있었다. ... 나는 二線에 있었기 때문에 日常的인 일들은 하지 않았다. 다른 同志들이 많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權威가 생겨나고 그럼으로써 내가 죽어도 국가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 (그러나) 一線의 同志들은 일을 적절하게 處理하지 못했고 또 나도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에게도 責任이 있다. ... 17年 동안 一線과 二線은 團合되지 못했었다.」¹¹⁾

毛가 말하는 "一線", "二線"하는 것도 앞서말한 權威의 分割機能을 말하고 있다. 毛도 一線과 二線(필자가 말하는 權威의 實行機能과 分配機能)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 独占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國家安保」와 스탈린 死後에 일어난 일들에서 얻은 교

혼으로해서 두 機能의 分割이 必要했다고 말하고 있다. 毛가 인정한대로 왜 이 機能의 分割遂行이 원활하게 作用하지 않았던가? 그것도 17年 동안이나!

理論적으로 말한다면 權威와 權力은 相互 補完的이지만 別個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政治的領域에서의 權威라고 할때 그것은 當然히 權力의 뒷받침을 받는, 權力이 지니는 여러가지 物理的制裁機能을 前提로 해서만이 그 의미가 成立될 수 있다. 그러나 權威의 속성은 힘을 사용하지 않을때 發揮되는 것이지 "힘"에 의한 威脅, 또는 行使의 단계에까지 이르면 그것은 이미 權威(Authority)가 아니라 權力(Power)의 次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반면, 權力 그 자체가 權威를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權威는 "上"(Super ordinary)과 "下"(Sub ordinary) 사이의 價値의 共有性, 價値의 連帶性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權力은 物理的 制裁의 可能性에 따른 威脅에서 服從關係가 成立된다. ¹²⁾

毛의 活動領域이 主로는 理念的인 또는 共產主義가 갖고 있는 "價値"를 解釋하고 그 의미를 再賦與하고 국민들에게 注入시키는 역할이라면 그의 同志들이 하는 일은 理念에 따라 設定된 여러 政策들을 實踐에 옮기는 役割이다. 그리고 그 實踐過程에서는 勿論 強制性이 前提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毛沢東이 바라는 "一線"과 "二線"의 團합이라는 것도 兩者가 서로의 領域을 侵犯하지 않을때 可能하지만 그러나 "一線"인 "二線"의 權威에 順從하고 服從할때 可能하다. 왜냐하면 概念的으로나 실제

적으로나 "二線" (權威)은 "一線" (權力)보다 系序上的 優位에 서야 하며 位階線上에서 毛는 그의 同志들보다 上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理論的인 觀點을 떠나 兩者가 실제로 確然하게 分離되어 그 各各의 固有한 機能과 役割을 지킬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따른다. 充分한 자격과 경험과 기반을 쌓은 權力者란 조만간 權威의 分配者에게 挑戰할 생각을 갖게될 것이고 또 權威를 侵蝕하는 權威의 分配者는 權威의 實行者의 忠誠을 試驗해 보기 위해 자기가 "委託"했던 權力마저 뺏으려고 시도해 볼런지 모른다. 毛沢東과 劉少奇, 毛와 林彪, 毛와 華國鋒의 관계는 中共政治에서 이 두가지 機能을 각각 代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權威의 分配者와 實行者라는 것은 民主主義國家의 內閣責任制下에서 兪見되는 大統領과 內閣首班과의 關係보다는 大統領制下에서의 大統領과 內閣首班과의 關係와 비슷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共產國家 특히 中共政治의 脈絡에서 본다면 毛沢東은 무엇보다도 共產革命의 一級之勳으로써 갖는 威光때문에 또 공산당이 갖는 鐵權的인 統治戒律때문에 大統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權威를 누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一線"과 "二線" 또는 權威의 分配者요 實行者라는 機能의 分割이 可能했던 것이다. 그러나 兩者가 適正한 均衡關係를 취해서 能率的인 統治體系를 이룬다는 것은 中共에서조차 어려웠다. 그러한 適正한 均衡關係가 이뤄졌을 때 中共指導層은 가장 잘 團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均衡關係가 어느 한쪽으로든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指導層의 分裂은

싹트기 시작했고 文化大革命에서 그 均衡은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均衡의 鍾은 完全히 權威의 分配者인 毛沢東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毛는 文革期間中이나 그 이후에도 이 두가지 機能은 分離시켰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文革以前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는 毛는 그자신의 兪령으로 보아 두가지 機能을 独占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도 하지만 文革以前의 경험으로 보아 단순히 權威의 分配者 機能만으로서는 그 자리의 保持가 어렵다는 結論을 내린것 같다. 이러한 생각에서 派生된 현상이 分配者의 機能을 神聖不可侵으로 神格化시키는, 그리고 分配者의 思想을 体制의 한 屬性으로 固着化시키는 作業이 必要하다고 느낀것 같은데 이것이 毛의 個人崇拜思想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사태의 當然한 歸結이다. 13)

둘째는 文革以前의 中共指導体制內에서의 均衡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一線" 對 "二線" 즉 毛의 同志對 毛沢東 자신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政治局의 常務委員會의 幹部對 毛 개인의 對決이었는데 文革以後에는 政治局常務委員會의 各派閥間의 對立으로 變했다. 毛는 다만 超然한 자리에 앉아 이 派閥들이 벌이는 싸움을 구경하면서 反則者에게는 警告를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退場을 命하기도 하는 일종의 審判官의 役割을 했다. 또 단순한 審判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得勢하든지 失勢하든지 하면 必要에 따라 毛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느쪽으로든 기울여서 大勢를 左右하기도 한다. 毛는 이를테면 調整子, 均衡子 또는 平衡器

로서의 役割만을 함으로써 누구도 犯接할 수 없는 安定된 權威의 자리를 구축했다.

老·壯·靑의 三結合이란 다르게 아니라 바로 相互牽制, 相互監督하기 위해서 必要했던 것이다. 말은 "三結合"이라고 했지만 年齡, 經驗, 利害關係가 다른 老·壯·靑이 어떻게 結合할 수 있는가? 그 실제적 의미는 "三結合"이 아니라 "三分裂" 함으로써 毛의 仲裁權, 毛의 調整權이 極大化될 수 있는 狀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정말 老·壯·靑이 三結合하면 그것은 곧 毛權威의 終末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三分裂"해서 相互相關하고 牽制하는 機能이 가장 잘 發揮될 때 毛의 權威는 가장 高揚되고 毛의 思想도 성공적으로 伝變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었던 것이다. 毛는 老·壯·靑이 글자 그대로 三結合해서 挑戰해 오지 않는限 文革前과 같은 追從者들의 "大量背信"은 있을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林彪의 背信은 그 真相이 확실히 알려진게 없으나 文革前의 劉少奇의 公開發의 挑戰 또는 지도자들의 聯合에 의한 挑戰과는 狀況이 다른 이룰테면 하나의 陰謀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文革以前과 마찬가지로 權威의 二機能은 分離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毛沢東의 權威는 個人崇拜思想으로 体制의 한 部分이 되고 "聖域"의 威儀를 갖게된 반면 그의 準競爭者들의 처지는 相對的으로 弱化되었다. 毛와 幹部들의 權威의 按配에 따른 均衡은 毛에게 圧倒적으로 傾斜된채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不均衡한 상태에서의 均衡, 이것이 三結合의 原則에 따라 固定된 毛와 그의 후계자들과의 관계였다. 三結合이란 참으로 毛沢東다운 妙案이었다.

老·壯·靑이란 百年後에도, 千年後에도 그 効用性を 잃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壯도 늙으면 老요, 靑도 나이 먹으면 壯이 되니 老·壯·靑이 三結合을 마다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三結合은 연령적인 의미에서 新과 旧, 理念에 있어서의 保守와 進歩, 統治方法에 있어서의 牽制와 均衡을, 力學的인 의미에서의 힘의 均配를 완벽하게 갖춘 일종의 體制安全瓣이 된 셈이다.

三結合은 일종의 集團指導制다. 그러나 文革以前의 集團指導制와는 判異한 성격을 갖게되었다. 文革以前의 그것은 주로 政治局常務委員을 두고 하는 말이다. 政治局員中에서도 要人만 다시 골라내어 구성된 것이 常務委員이니 이것은 곧 核축의 核이라 할 수 있다. 그 멤버는 누구나 후계자가 될 資質과 經력을 쌓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때의 核心멤버들은 毛와 一生을 同苦同樂해온 할자 그대로 毛의 同志요 同僚들이었다. 따라서 毛에 대한 이들의 發言權은 文革後 毛에 의해서 任命된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文革前의 멤버들에게는 毛자신도 그들의 去就에 대해서 어찌 할 수 없을 정도의 經력과 党内基盤을 쌓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풍부한 党歷과 그리고 이미 試驗된 忠誠이라는 客觀的基準에 따라 權力의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들이라면 文革以後의 멤버는 거개가 毛의 好意와 江靑과의 親疎와否에 따라 任命된 사람들이다. 中共版 네포티즘의 產物들이다. 그래서 文革以前의 멤버들은 七全大會以後 거의 交替가 없다싶이했고 人員도 少数精銳였다. 七全大會에서 선출된 書記處(政治局 常務委該當)의 멤버는 毛沢東, 劉少

奇, 周恩来, 朱德, 陳雲의 다섯 명이고, 1956년에는 鄧小平이 添加되고, 1958년에는 林彪가 들어앉는 대신 나중에 陳雲이 脱落되었다. 어쨌든 그 본래의 멤버는 陳雲을 빼면 상당한 持續性을 維持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1969년의 九全大會에서 選출된 政治局常務委 멤버에는 劉, 朱, 鄧, 陳雲은 다 떨어져 나가고 毛, 林彪, 周恩來가 남았을 뿐 새로이 毛의 心服인 陳伯達, 康生이 들어 앉았다. 陳은 1970年 肅清당했지만 한때 毛의 秘書를 지낸바 있고 中共의 배리이라고 불리던 康生도 毛의 手足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다시 1973年의 十全大會에서 選출된 사람들은 常務委의 멤버수도 늘었지만 名實共히 三結合의 按配原則에 의해서 選출된 사람들이다. 그 面面을 보면 常務委主席에 毛, 그리고 5명의 副主席에 周恩來(老), 王洪文(青), 康生(壯), 葉劍英(老), 李德生(老), 朱德(老), 張春橋(壯), 董必武(老) 등으로 老·壯·青의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의 選출에는 勿論 毛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逐出된 黨幹部들을 대신하기 위해, 또 常務委의 權威와 黨의 法統性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朱德과 董必武같은 元老를 추가했으나 그 구성원들의 能力이나 權威가 전만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毛의 지위는 확고하게 되고, 毛思想은 體制化되고 後繼를 위한 作業은 毛의 의사대로 본격적으로 着手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毛의 個人崇拜에 대해 잠간 言及하기로 하겠다.

文革以前 한때 毛에게는 個人崇拜가 必要없는만큼 그는 充分한

權威을 누리고 있었다. 또 사실 蘇聯과는 달리 中共에서는 거리나 都市 이름에 어느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命名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文革에 즈음해서는 失墜된 權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毛에 대한 개인숭배는 必要해졌다. 毛 자신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1970년에 가진 애드가·스노우와의 會見에서 그의 統制를 벗어난 黨活動을 장악하기 위해, 그리고 反毛分子들을 除去하기 위해 個人崇拜는 必要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14) 따라서 個人崇拜는 權力의 失地回復을 위해 考案된 窮餘之策이다. 毛는 個人崇拜를 변명하면서 中國인들이 3千年 지켜온 皇帝崇拜의 습관을 버리는 어렵다고 했다. 毛는 또 「美國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個人崇拜를 갖고 있지 않느냐? 各州의 知事 또는 大統領이나 長官들도 그들을 崇拜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해나갈수 있는가? 사람들은 崇拜를 當하고 또 崇拜하고 싶은 慾望이 언제나 있는 법이다. 만약 당신의 책이나 記事를 읽어주는 讀者가 없다면 당신은 행복하겠는가? 약간의 個人崇拜란 의의 있게 마련이며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오랜 친구인 스노우記者에게 털어 놓았다. 15) 毛는 또 흐루시초프도 개인숭배를 얻지 못해 失權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毛가 개인숭배가 必要하다고 생각한 이유중에는 毛沢東思想이 맑시즘-레닌리즘과 같이 中國共產革命의 教條的 正統性의 상징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그가 追求해 마지않던 不斷革命을 永統化 시킬수 있는 根柢를 提供해 주고 또 毛思想에 대한 背信은 곧 共產革命에 대한 背信이 된다는 政治的等式을 후계자들

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죽고난 다음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遺志를 잘 받들어 줄 것인가 또는 革命이 腐敗하지 않고 不斷히 새로운 價值가 創造되는 끊임없는 變化와 革新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 그는 未來에 대해 극히 悠悠自適한 樂觀이랄까 達觀에 가까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스노우에게 未來의 世代는 그들대로의 目標가 있을 것이고 500年, 1000年 後에는 맑스나 영겔스도 우습게 생각될게 아니냐는 극히 觀照的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毛가 겉으로 平靜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때 그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熱火같은 情熱과 치밀한 計劃이 자리잡고 있기가 일쑤였다. 이를테면 毛는 文化革命前夜에도 스노우를 만나 「곧 神을 보러가게 될것」이라는 말을 했고 우울한 蠶居生活을 하는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은 그의 政敵들을 誘導하기 위한 일종의 陽動作戰이었다는 것이 스노우의 판단이다. 16)

어쨌든 毛沢東에 대한 個人崇拜思想은 文化大革命이라는 世界歷史上 前無後無한 變革의 渦中에서 製鍊되고 精鍊되고 "鑄造" 되어서 뚜렷한 이미지와 내용과 型態를 갖추고 그 鑄型을 中共의 共產體制라는 政治「오브제」에 뚜렷한 윤곽을 남기게 되었다. 좋은 싫든 中共의 政治體制는 그 적혀진 鑄型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게끔 體制속에 毛思想은 內在化 되었다.

그러나 毛沢東의 承繼作業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에는 뜻하지않은 汚点과 伏兵이 박혀 있었다. 그것이 1971年の 林彪의 反逆事件이

다. 그러나 林彪事件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毛沢東이 文革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代價였다. 文革의 損益計算表에 그것을 記帳해 놓지 못한 것은 毛의 失手였는지 모른다. 林彪는 1958年, 그러니까 彭德懷肅清이 있기 이미 1年前에 國防相인 彭을 누르고 政治局의 常務委員이 된 以後 毛에게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唯一하게 의지할 수 있는 支柱를 提供해 준 사람이다. 中共政治를 받치고 있는 세계의 權力支柱는 黨·政·軍이다. 黨은 大躍進前에 이미 劉少奇, 鄧小平의 수중으로 떨어졌고 軍도 彭의 毛에 대한 抗拒가 보여주듯 毛의 統制를 벗어나 있었다. 政治의 力學的인 歸結로 보아 黨·軍이 反毛戰線을 形成하는 경우 周恩來휘하의 "政"(行政府)도 黨·軍의 聯合戰線에 合勢할 것은 뻔한 理致였다. 周恩來는 비교적 親毛의 忠誠을 견지해 왔었으나 그러나 明白히 勢不利한 狀況에서 그러한 忠誠이 發揮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彭德懷는 國防相을 解任당한 후에도 政治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만약 劉少奇, 鄧小平등이 黨中央委의 承認을 거쳐 그를 復權시켰던들 毛는 두손 들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千慮의 一失이랄까. 劉, 鄧은 앞서 말한대로 毛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彭을 지지하지 않았다. 毛가 이 失手를 利用하여 그리고 林彪를 重用하여 國防相에 앉히고 다시 그에게 依托하여 軍의 支持를 얻지 못했던들 毛는 文革을 일으킬 수도 成事시킬 수도 없었을 뻔 했다. 그러나 林彪는 毛思想의 챔피언이 되었고 文革에서 赫赫한 공훈을 세우고 1969年의 九全大會서는 黨憲에 毛의 후계

자로 登場하게까지 되었다. 여기까지는 毛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사태의 必然的인 歸結이었다. 文革때 軍의 役割을 생각해 보면 이는 쉽게 이해될 것이다. 林彪가 지나치게 일을 서둘러 反毛作戰을 펴고 悲劇的인 최후를 마친 것은 林의 自業自得이었다고 할까. 그러나 실사 林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毛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承繼過程에서 軍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절대 必要하지만 軍 하나만으로 承繼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는 어렵겠기 때문이다. 또 毛의 비호하에 움직이는 軍과 그의 支持가 철회된 軍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軍이라곤 하지만 12個 軍區가 林彪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軍内の 支持분포도 여러갈래라는 것은 毛死後 承繼過程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분명해진 사실이다. 林彪事件은 결과적으로 毛의 不死鳥같은 끈질긴 政治的生命力을 다시한번 돋보이게 해줬고 또 毛로 하여금 후계문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毛는 이제 그로서는 한번도 시험해보지않은 後繼計劃을 세운것 같았다. 그는 강력한 후계자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아주 弱質의 후계자를 세워 놓았다. 그 후계자가 바로 毛의 故鄉인 湖南省의 湘潭에서 농업전문가로 변변찮은 地方官僚로서의 出世街道를 달려오던 華國鋒이다. 華는 1972년에 副首相兼 公安相이 되고 다시 首相署理, 그리고 毛가 죽자 党主席, 首相이 되었다. 綺羅星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華가 후계자로 오른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길이 없다. 다

만 毛沢東의 心中을 해아려 추리해 보는 수밖에 없다.

첫째 華는 政治的으로 無色투명한 中立의 人物이다. 다른말로 그 자신의 강력한 政治的 所信이 없는 사람이다. 이 政治的 中立性, 無色性이야말로 華가 拔擢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政治的으로 強한 所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만간 그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보일 영똥한 짓을 하게 될 可能性이 농후하다. 毛로서는 이런 후계자는 養虎憂患의 근심을 주는 위험人物일 뿐이다. 中共政治는 文革以來 三結合原則에 의해서 急進派와 穩健派, 進步派와 保守派, 그리고 黨·政·軍이 서로의 牽引力을 틀고 잡아 당기는 힘의 均衡狀態가 維持되어 왔다. 力學的인 의미에서나 또 中共政治의 實際에 있어서나 對立하는 左·右의 두 세력간의 均衡을 맞추기 위해서는 큰 힘이 들지 않는다. 毛는 生前에 힘 안들이고 지나치게 得勢하는 쪽은 牽制하고 지나치게 失勢하는 쪽에는 힘을 빌려 줌으로써 均衡子로서의 役割을 쉽게 해낼 수 있었다. 毛의 후계자는 이미 이렇게 꽉 짜여진 政治의 틀을 운영하기만 하면 되는 消極的인 役割만을 부여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獨自的으로 強大한 힘을 가진 사람이나 政治的 所信이 뚜렷한 人物보다는 華國鋒같은 사람이 더 適格인 것이다. 그리고 華에게는 그의 자리를 維持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毛의 後嗣로서의 法統性을 인정받고 있으니만치 그것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三結合이란 老·壯·靑 세 그룹의 對立이라기 보다는 華를 頂點으로 左·右의 두 세력간의 競爭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것이다. 마치 二等辺 三角形처럼 固定된 左·右의 두 辺을 軸으로 하여, 그리

고 그 二等辺의 對等한 길이와 힘에 의해서 三角形의 頂點은 維持되고 있듯이 華는 均等한 힘을 按配받은 두 세력간의 밀고 밀리는 對立에 의해서 頂上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左·右 어느 쪽이든 頂上을 넘보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쪽의 得勢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反撥과 逆反應을 가져올 것이고 華는 左·右 어느 한쪽과 聯合하여 그 得勢한 쪽을 누를려고 할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후제자인 華의 힘의 源泉은 그 자신의 独立的인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毛가 이미 精巧하게 짜놓은 政治的均衡 關係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華는 이 均衡위에서 頂上의 位置를 維持하는 限 毛沢東이 남겨준 일련의 思想的·政策的 유산을 저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源泉은 바로 毛沢東의 유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6年 10月の 江青등 四人幫의 쿠데타 企圖에서 모든 毛死後의 狀況은 毛가 生前에 짜놓은 脚本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우선 四人幫으로 代表되는 左派의 沒落은 二等辺三角形의 한 辺이 풀러앉은 形局이나 마찬가지 꼴이 되었다. 華도 따라서 均衡關係 위에서의 平衡器役割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生存을 위해 右派와 提携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華는 그의 權威와 權力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牽引力을 잃어버린 셈이나 마찬가지다. 四人幫이 華의 權力을 奪取하려고 했지만 아이러니컬 하게도 華를 위해서는 四人幫이 일을 벌이지 말고 右派를 견제하는 役割을 해 주었더라면 훨씬 좋을뻔 했다. 앞으로의 中共政治는 사태의 枝葉末端이나 表面的인 움직임보다는

華國鋒과 鄧小平으로 代表되는 右派의 動向여하에 크게 달려있다고 보아 무망할 것이다.

한걸음 더나가 추측을 해보면 華國鋒이 右派에 의지해서 權力을 유지하는 限 그의 자리는 安全하지만 無力한 頂上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鄧小平의 役割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있다. 鄧의 役割은 四人幫의 逐出로 상대적으로 그만큼 強化되었고 華의 위치는 그만큼 弱화되었다. 그러나 鄧도 華가 必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華가 毛의 後嗣로 正統性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華·鄧의 관계를 말하면 劉少奇가 쫓던 承繼計劃 즉 毛는 名譽主席 자리에 머물고 劉는 實質的인 權限을 행사하게 되어 있던 그런 樣相과 아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正統性의 상징으로 劉가 毛를 必要로 했듯이 鄧도 華를 똑같은 이유로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鄧은 華를 제치고 權威의 分配機能과 実行機能을 兼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權威의 實行者로서만이 權力을 더 效率的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華를 제치고 頂上에 올라설 경우 거기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鄧이 그런 野心을 키울 可能性을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우 시간의 경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른다면 鄧이 權力을 独占할만큼 強大해지고 또 大衆에 대한 그의 이미지가 毛의 그것을 代替할만큼 되어야 한다.) 鄧은 이미 夕陽길에 접어든 사람이다.

鄧이 實用主義路線을 추구하면서 抵抗을 적게 받고 있다면 그것은 毛의 後嗣인 華의 積極的인 支持가 있음으로 해서다. 왜냐하

면 毛思想을 내세워 實用主義路線에 挑戰하려는 潛在的인 競爭그룹의 反對名分을 빼앗아 버리는 役割을 華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四人幫의 沒落으로 左派를 받치고 있던 軸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中共政治의 속성으로보아 左派的要素는 體制化된 一部分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上海市黨의 要人들이나 四人幫이 없어졌다고 해서 左派的인 요소(人物에 있어서나 思想, 政策에 있어서)가 除去된 것은 아니다. 紅·專으로 상징되는 左·右派의 鬭爭도 紅을 전제로한 專, 專을 전제로한 紅이치 온전히 專이요, 온전히 紅은 아니다. 또 실사 그 어느쪽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紅·專 속에서는 그 각각에 또다른 左·右의 相衝되는 요소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汪東興 등으로 代表되는 公安세력의 動向도 주목된다. 中共의 政治氣流를 結論적으로 말한다면 毛沢東의 遺志를 계속 받들면서도 右派的性向이 強한 實用主義路線의 堅持가 豫見된다. 이것은 상당期間동안 持續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毛沢東의 後嗣計劃은 部分的으로 成功했을 뿐 完全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毛의 不斷革命은 이제 「斷統的」으로 계속될뿐 「不斷히」 계속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北韓의 動員體制로서의 危機와 承繼 危機—中共과의 比較的 觀点에서

北韓을 현대의 프르시아 국가라고 말한 사람은 西方記者로는 처음으로 1972年 5月 26日 北韓을 방문했던 뉴욕·타임즈의 해리슨·솔즈베리 副局長이었다.

1972年 5月이면 최초의 南北會談이 平壤서 열렸던 그 무렵이요, 7·4 共同聲明이 발표되기 얼마전의 일이다. 이를테면 制限된 和解 분위기나마 느낄 수 있었을 그 시절의 北韓에서 솔즈베리는 살벌하고 딱딱하기 그지없는 兵營社會의 面貌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北韓의 후계자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문제인데 솔즈베리가 집중적으로 그의 관찰의 초점을 맞춘 것도 바로 이 개인崇拜 문제였다. 스탈린時代의 個人崇拜를 익히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도 北韓에서의 金日成崇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유치원 아이들은 金日成의 「革命家系」의 이름과 生日들을 매일같이 반복, 朗誦하고, 金日成讚歌를 부르고, 童話대신 金의 捏造된 抗日鬪爭 얘기를 외우고, 라디오, 신문 등 모든 매스컴은 金日成의 權威를 부추기지 않고서는 한글의 기사도 쓰기 어렵고, 金의 이름을 듣지 않고는 단 100피트의 거리도 걷기 어렵다는 것이 솔즈베리의 인상담이다. 프르시아 時代의 어느 兵營을 옮겨다 놓은 듯 平壤의 거리에는

밤낮없이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손을 휘저으면서 直步자세로 걷는
 사람들은 벤츠차만 지나가면 으레 要人の 行車로 알고 경례를 한다.
 솔즈베리는 이 모든 觀察을 결론하여 「나는 일찌기 이런 현상을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목도해 본 일이 없다. 스탈린의 全盛期에도
 그에 대한 個人崇拜은 스탈린 자신에 집중되어 있었다. 스탈린의
 家系에 대해서는 소수의 친구들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실
 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들은 때로 생명까지 바쳐야 했다.
 어떤 공산주의 독재자도 革命家系에 들러 싸였던 적은 없었다.
 레닌의 가족들도 革命活動을 했지만... 蘇聯歷史에 조금 기록됐을
 뿐이다. 그러나 레닌이 거의 神에 가까운 위치에까지 올라섰을
 때조차도 神格化는 없었던 것이다」¹⁷⁾ 라고 말하고 있다. 金
 日成에 대한 個人崇拜은 차라리 寓話的이라고나 할까, 喜劇的이라고
 나 할까, 그런 성질의 것이다. 中共에서 조차 영화에 金日成이
 나오면 觀察들은 웃음을 터뜨린다고 한다.

그러나 웃어버릴 수만도 없는 金日成에 대한 이 엄청난 神格化
 현상은 北韓에서의 후계문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이 北
 韓에서의 後繼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要因중의 하나가
 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해도 中共과 北韓은 比較의 視覺을 提供하
 는데 반드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北韓은 共產黨에서도
 그만큼 突然變異의 성격의 体制를 만들어 왔다. 毛沢東의 個人崇
 拜와 金日成의 個人崇拜에도 그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 北韓

의 경우 個人崇拜의 幅과 深度, 그리고 그것이 行해져 온 期間에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金은 그의 個人崇拜과 神格化를 위해 거대한 「權威의 神殿」을 쌓아왔다. 金日成의 權威의 神殿이 크고 높아질수록 이를 짓느라고 동원된 北韓住民들의 存在는 마치 거대한 공사에 동원된 「人間개미」의 存在처럼 無力해 보인다. 앞으로 일어날 北韓에서의 承繼에 대한 의문은 따라서 金日成이 구축해 놓은 巨大한 虛構의 權威가 그들이 말하는대로 代를 물려서 溫存되고 傳變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여기서는 中共의 승계 과정과 비교해서 몇가지 相異點을 지적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金日成의 權威의 本質에 대한 糾明이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政治的 權威에 대한 概念的 究明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政治的 權威란 概念에 있어서나 그 實際的 適用에 있어서나 自發的인 服從關係를 誘導함으로써 可能한 것이다. 權威는 그 자체가 規範이나 法律 또는 強制的 制裁의 適用에 依해서라기보다는 命令者와 服從者사이를 이어주는 連帶의 끈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이 連帶의 끈이 무엇이나 할 때 그것은 때로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追求하는 목표에 대한 價値의 共有일 수도 있다. 아미타이·에지오니 같은 사람은 命令과 服從關係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첫째는 強制的 手段, 둘째는 補償的(經濟的) 手段, 셋째는 "規範的" 手

段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서 "規範的" (normative) 이라고 할 때 그것은 "規範" (norm) 과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에지오니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權威" (authority) 와 "權威的" (authoritarian) 이란 뜻이 다른 것과 같이 規範이란 하나의 「規定된 秩序」(그것은 이미 옳고 그르고의 判斷以前에 既定化되어 있다)지만 "規範的" 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道德的·倫理的判斷을 前提로 한다. 에지오니는 強制的 手段이 統制의 主要手段이 되는 社會에서는 「疎外的 參與」(Alienative Involvement)에 의해서 服從관계가 成立되고(例컨대 監獄처럼), 補償的 手段이 統制의 主要手段이 되는 社會에서는 「計算的 參與」(Calculative Involvement)에 의해서 服從관계가 成立되고(例컨대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會社에서처럼), 또 規範的 手段이 統制의 主要手段이 되는 社會에서는 「規範的 參與」(Normative Involvement)에 의해서 服從관계가 成立된다고(例컨대 學校나 교회에서처럼) 말한다. 18) 따라서 疎外的 參與가 이뤄지는 社會에서는 一方的인 命令에 의해서, 計算的 參與가 이뤄지는 社會에서는 補償의 質과 量에 대한 計算에 따라 參與者의 參與誘因이 變動된다. 그러면 規範的 參與가 이뤄지는 社會에서는 어떤 誘因에 따라 參與가 결정되는가?

政治的 權威란 그 本質에 있어서 이상 3개의 手段을 똑같이 具有하고 있을 때 可能하다. 이를테면 宗教的 權威와는 달리 物理的 手段이나 經濟的 手段이 排除된 온전히 道德的인 正當性만을

가지고 있는 政治的 權威란 想定해 보기 어렵다. 똑같은 論理로 規範的 誘因을 喪失한 物理的 또는 經濟的 手段만으로 구성되는 政治的 權威는 成立되기 어렵다. 그러나 政治的 權威는 이 세 要素를 그 構成因素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 실제적 命令-服從關係를 誘發하는 데는 規範的 誘因에 의한 連帶로만 可能하다. 政治的 權威를 成立시켜주는 命令者와 服從者間의 連帶의 끈 또는 規範的 誘因을 피터·브라우는 價値의 共有로 把握하고 있으며 탈코트·파슨즈는 "制度化된 一團의 規範"으로¹⁹⁾, 리처드·메넬만은 "道德的 正当性"으로²⁰⁾ 찰머스·존슨은 理念的 說得力으로, 에지오너는 文化的 同質性으로 각각 把握하고 있다. 그 어느 경우이든 政治的 權威에 의한 治者와 被治者를 맺어주는 끈은 결국은 道德的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라도 治者와 被治者가 自發的으로 承服할 수 있는 價値를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政治的 權威와는 달리 權力이란 반드시 이런 價値의 共有性이 필요치는 않다. 權力에 의한 服從關係란 여러가지 制裁力(Sanctions)에 의한 關係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價値의 共有, 文化的 同質性 또는 道德的 正当性을 前提로 하지는 않는다. 政治學者들이 權力과 權威를 区分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은 다소 抽象的인 概念문제에 대한 규명이지만 政治的 權威를 생각해 보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權威의 主因素가 되는 "價値"(의 共有)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價値를 現實的인 政治世界에서 그 対象物을 찾아보려 할

때 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또는 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中共의 경우 그것은 한 때 民族主義的인 國民들의 念願으로 凝集되었다. 外勢의 收奪과 帝國主義的 侵略으로부터의 獨立, 中國伝來의 文化的 偉大性を 회복하여 中華의 位置로 회복하는 일 등등 民族自強의 "民族主義的 價值"가 中國인들이 共有하는 共通의 價值였다. 共產黨의 窮極的 目標인 社會主義를 잠시 留保하고 中共黨이 國民黨과 別인 競爭은 바로 이 民族主義的 價値를 누가 먼저 實現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毛沢東이 主唱한 "最低綱領"과 "最高綱領"이란 바로 公産黨이 漸定的인 偽裝戰術로 民族勢力을 自勉하여 國民黨 등 非共產勢力과 合作도 하고 聯合도 하여 民族的 念願을 먼저 實現하고(最低綱領) 나중에 社會主義的 理想(最高綱領)을 實現하는 것이었다.

"民族主義的 價值"란 찰머스·존슨의 표현이지만²¹⁾ 中共黨의 正統性이란 國民黨과의 公開的인 競爭에서 이 "價值"를 먼저 성취했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毛沢東의 政治的 權威도 물론 이에서 基因하는 것이다.

존슨은 獨立自尊으로 대표되는 "最小目標"은 中國共產黨이 充足시켰지만 産業化, 工業化 등 近代化作業의 完成에 의한 富國強兵의 "最大目標"의 實現에는 失敗함으로써(大躍進運動에서 보듯) 여기서 생기는 中共黨과 國民들의 乖離에서 中國共產黨의 正統性的 危機는 나타난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²²⁾

金日成이 가지고 있는 權威의 內容이 民族的 正統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價値의 共有」에서 생기는 治者-被治者間의 連帶感이 自發的으로 維持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東歐의 共產政權이 政權의 承繼危機를 자주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共產獨裁政權이 갖기 마련인 그 「專制的 脆弱性」에도 연유하지만 무엇보다도 獨裁政權의 內生的 基盤이 아주 脆弱한데 있다. 內生的 基盤이란 革命을 爲한 土着的인 諸條件의 成熟을 의미하고 이 土着的인 條件위에서 自生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공산당으로서 이 自生力의 缺乏은 必然的으로 그 缺乏을 補填시켜주는 根源을 다른 곳에서 찾게 마련이다. 이것은 自然히 權力獲得過程에서의 正當性 賦與가 크게 缺如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外勢依存的 傾向의 深化現象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外勢依存的 傾向과 民族的 自尊과는 兩者가 後進國에서는 深한 相衝現象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前者가 後者の 獨立性을 侵蝕하는 만큼 共產政權의 正統性의 危機는 상대적으로 커진다.

공산정권의 承繼危機란 필연적으로 正統性危機의 한 延長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共產政權이 土着的인 條件위에서 生長할 수 있는 自生力을 잃어버린데 있다고 할 수 있다.

金日成政權이 執權過程에서 東歐諸國과 類似한 土着的 自生力을 缺如하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正統性의 危機도 아울러 潛在的으로 包持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脆弱性이 除去되지 않는限 金日成은 한달 衛星國의 傀儡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政權維持 또는 장차의 權力承繼에도 하나의 큰 障礙要素가 되리라는 것은 分明하다.

스탈린 死後, 그리고 그에 따른 蘇聯의 指導體制가 弱化氣微를 보였을 때 金日成이 "主体思想"을 의치고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 金日成은 1955年末을 前後해서 마치 毛沢東이 中國革命을 위해 맑시즘-레닌이론의 中國化를 의쳤던 것처럼 共產主義 運動의 朝鮮化를 高唱하게 된 것은 土着的인 自生力을 얻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었다. 이것은 北韓政權이 가지고 있는 權威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當然한 論理的 帰結이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權威를 盤石위에 올려 놓기 위해 "民族主義的 價值"를 創造함으로써 國民들과의 「價值의 共有帶」를 만들어 불러는 노력이었다. 하나의 信念體系 또는 理念으로서의 主体思想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否認하는데도 不拘하고 民族主義的 價值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民族主義的 價值가 理念的 說得力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南北을 통틀어 適用될 수 있는 論理다. 그것이 "規範的 參與"의 誘因을 提供하고 同時에 政治的 權威의 正當性을 높여주리라는 것 또한 當然한 일이다. 왜냐하면 존슨이 中國의 民族主義에 대하여 觀察했던 것처럼 最小限으로 經濟的 富強, 外勢로부터의 真正한 獨立과 最大限으로 中國이 強大國의 位置를 獲得하는 일이라면 中國의 大衆들은 이 目標의 달성을 위해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큰 희생을 堪耐할 準備가 되어 있었기」²³⁾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南北韓의 大衆들에게도 똑같이 適用되는 論理다. 그러나 金日成이 創案해낸 主体思想이란 그 말 자체부터가 北韓의 從屬的·依存的 位置와 또는 非主体性을 逆說的으로 나타내 주는 用語이지만 그

내용은 思想에 있어서의 主体, 政治的인 自主, 經濟的인 自立,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 外交에 있어서의 自主²⁴⁾ 라는 그럴듯한 名分을 내걸고 있다. 主体思想은 그 내용으로 보아 毛沢東의 "最低綱領" 과 "最高綱領", 그리고 쏘련의 "最小目標" 와 "最高目標" 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 本質에 있어 民族主義的 價値다. 主体思想은 그 概念에 있어 거의 모든 概念的 領域과 準概念들을 包括하고 있는 일종의 雨傘的 概念 (Umbrella Concept) 이다. 그것은 맑시즘-레닌이론의 特殊的 適用에 대한 理論的 正當性의 매니페스토일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와 民族主義사이에서 생기는 矛盾-葛藤關係를 解決하기 위한 「金日成主義」의 새로운 定立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것은 1956 - 58年間的 肅清구실을 提供해 주고 中·蘇사이에서는 危險한 等距離姿勢를 취하는데 있어 有用한 武器가 되어준 多目的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실제로 主体思想이란 思想的 新武器를 創案해 낸 이후 맑시즘의 土着化를 위해서 中·蘇사이에서 外交的 牽引力을 높이는 데서, 또 肅清劇의 名分으로서 對南宣傳에 있어 그 有用性을 證明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主体思想이 北韓共產政權이 가지고 있는 正統性의 危機를 극복했느냐 또는 金日成의 權威가 毛沢東의 경우처럼 그 思想이 體制化·內在化의 效果를 성취했느냐 하는 의문이다. 나는 이 의문에 대해서는 否定的으로 보고 있으며 더구나 主体思想이 후계자에게까지 毛思想이 그러했던 것처럼 後光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毛沢東은 그

의 경력이나 地位를 떠나서도 그만의 카리스마에서 연유하는 剩餘 價值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毛의 思想이나 作風은 中共體制속에 깊이 內在化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의 思想的 遺産이나 後光이 그의 후계자를 보호해 주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毛는 三結合이란 巧妙하게 짜는 權力의 按配裝置가 필요할 만큼 후계를 위한 安全瓣을 마련해 놓았지만 그것조차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中共에서는 「政治優先」이란 用語가 暗示하듯이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大衆의 政治參與, 大衆의 思想的 高揚에 의해서 大衆들 속에 體質化되어 있다. 毛의 "群衆路線"이란 大衆의 政治參與의 自發性을 極大化시키는 機能을 구호뿐만 아니라 실제의 政治參與에서도 發顯시켜주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毛沢東의 權威란 大衆의 參與意識과 直結되어 있음으로써 政治的 象徴性의 效用을 높여왔다. 中共이 벌여온 數多한 大衆運動에 의해 中共의 大衆은 個個人的 理念的 信念을 確認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中共에서 黨·政·軍에 이어 第四의 權力支柱를 이루는 것이 無型態(amorphous)의 非組織的인 大衆인 이유가 여기 있다. 大衆의 政治意識과 毛沢東의 權威는 相互補完, 表裏의 關係를 이루고 있다. 毛沢東이 政策의 推進을 위해서 또 權力鬭爭을 위해서도 大衆에 의론하고 大衆의 힘을 利用하는 이유는 그의 權威가 大衆과 "價值"(理念)의 同質性을 共有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따라서 毛가 사라져도 그의 思想으로 代表되는 政治的 象徴은 大衆과의 連繫를 유지할 수 있고 大衆도 죽은 毛

의 權威에 依託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毛의 權威는 大衆이란 分身으로 해서 살아 있고 그의 후계자는 毛의 權威를 필요로 하는 限 毛의 政策的 遺産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은 웨버가 이르는 權威의 日常化, 因習化가 官僚組織의 體系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大衆의 意識을 통해서 表出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權威의 日常化, 體制化 또는 因習化가 大衆의 意識속에 內在化되고 政治的으로 表出될 수 있을 때에만 지도자의 權威의 伝襲은 可能할 수 있다.

金日成의 경우 主体思想은 理念의 틀로서는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또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특히 對外관계에서) 그 思想의 骨格을 提供해 줄 수 있는 北韓의 大衆에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主体思想은 그만큼 空疎한 이데올로기일 뿐 大衆과 指導者를 이어주는 「価値의 共感帶」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內在化된 価値(그 価値의 善惡的 判斷을 떠나서)가 存在하지 않는 限 真正한 權威란 成立되기 어렵다. 政治的 權威란 그 成立의 프로세스로 보아 大衆의 政治的意識을 통해 濾過되고, 政治參與를 通해서 그 道德的 正当性이 實証되고, 이것이 再投入의 과정을 거쳐 政治的意識으로 深化되고 蓄積될 때, 그리고 그것이 다시 超越普와의 連帶感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 그 실제적 存在價值는 確認할 수 있게 된다. 權威의 伝襲이란 바로 이런 경우에만 可能할 뿐이다. 25)

北韓에는 82個의 金日成의 銅像이 있다고 한다. 金日成의 權

威를 假裝하고 粉飾하고 誇張해 보이게 하기 위해 갖가지 政治的 裝飾物 (Political Paraphernalia) 이 등장하고 있다. 毛沢東과는 달리 金日成의 權威의 虛構性은 바로 이런 데서도 나타난다. 權力의 親族承繼란 人間에게는 가장 原始的이고 가장 未開한, 그리고 가장 本能的인 집착이다. 親族承繼의 경우 權力委任者나 被委任者 사이에서 생기기 마련인 信賴의 葛藤은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權威의 伝襲이란 애시당초 不可能한 일이다. 北韓에서는 지금까지 말해 온 權威의 蓄積過程은 없고 金日成의 權力의 集積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의 偽裝된 權威의 伝襲에는 따라서 必然的으로 權威의 危機와 正統性的 缺如에서 오는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위기를 漸定的으로 留保시키는 方法은 毛沢東처럼 權力의 安全瓣을 派閥의 均衡을 통해서 유지하는 方法이다. 毛가 만들어 놓은 三結合은 이미 言及한 대로 部分的으로만 성공했다. 北韓의 경우에도 비슷한 權力의 按配傾向이 보인다. 金日成의 世代인 60, 70代의 빨치산 世代와 金英柱 또래의 40, 50代의 党·官僚世代, 그리고 三大革命小組를 中心한 20, 30代의 金正一 世代는 빨치산 世代와 革命小組世代가 40, 50代의 中堅幹部들과 互角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均衡은 老·靑의 結合으로 金正一 쪽으로 우세한 局面을 유지케 함으로써 金正一의 승계작업을 유리하게 해놓고 있다. 이것은 金正一을 頂点으로 斜角을 이룬 二等辺三角型의 형태라고나 할까.

특히 北韓의 王東興이라고나 할 金日成의 經호책임자인 全文燮의

党内地位가 1975年 4月에는 23位, 1975年 10月에는 16位, 그리고 1977年 9월에 열린 「金日成에의 忠誠의 편지」 전달식에서는 9位로 急上昇한 것은 王東興이 이끄는 8341의 御營軍이 毛死後 어떤 역할을 했던가를 생각해 볼 때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최소한 金日成死後 豫期치 않는 權力의 變動을 막기 위한 事前조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누가 權力을 잡느냐, 金日成의 후계자는 누가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北韓이라는 하나의 政体가 맞아야 할 필연적인 성격의 變化를 豫測해 보는 일이다. 北韓에는 動員体制 特有的 緊張이 있다. 그것은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갖지 않으면 안될 緊張이다. 카리스마의 지도자는 이 긴장을 動員目標에 맞추어 에너지化할 수 있는 誘因動機를 大衆에게 分配하는 卓越한 能力때문에 動員体制의 긴장을 動員목표의 達成과 連結시키게 된다. 따라서 有能한 超越者는 理念의 硬直性을 固執하지 않고 動員의 목표에 따라 誘因手段을 적절하게 選擇하여 動員者의 만족을 유도하게 된다.

앞서 引用한 에치오니는 追求하는 조직의 목표와 그 목표에 맞는 수단이 符合關係에 있을 때에만 조직의 목표달성은 가장 效率的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動員体制의 경우 이것은 특히 맞는 얘기다. 動員体制가 動員体制인 이유는 바로 達成하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動員体制의 活力은 바로 목표달성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

中共의 경우 毛沢東이 大躍進과 같은 經濟的 動員에서 失敗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가 추구하는 經濟的 目標을 理念的 注入으로서만 성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文化革命이 經濟的인 損失을 가져왔지만 정치나 文化의 領域에서는 失敗하지 않은 이유는 추구하는 목표가 理念的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大衆에게 理念的 注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動員體制에서는 그 體質上 이미 設定한 목표의 성취없이 다른 성격의 動員體制로 넘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動員體制를 하나의 連續線 위에서 놓고 보면 그 線의 劃을 그어주고 끊어주어 다음 發展段階로의 移行을 可能하게 해 주는 것은 設定한 목표가 달성될 때에만 그렇게 된다.

動員體制의 存在能力과 存在價值도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고 그 正統性도 여기서 비롯된다. 動員體制의 正統性的 위기란 따라서 設定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다음 發展段階로의 移行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動員體制의 긴장은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다음 단계의 動員에 건설적으로 連結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建設的 連結에 失敗할 때 그 긴장은 否定的인 疎外나 抗拒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動員體制에서 價值的 共有性도 목표가 달성될 때 생기는 被動員者의 慾望이 充足됨으로써 可能한 것이다. 北韓이 動員體制로서 갖는 위기도 바로 그들이 설정한 목표가 하나 하나 失敗로 끝난데 있다. 또 사회주의 건설이요, 경제건설이요, 기술革命이요, 四大軍事路線이요 하는 動員目標가 失敗하여 外債

더미 속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는 切迫한 狀況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외에도 雜多한 動員목표를 同時에 성취하려는 무모한 政策에도 北韓이 動員體制로서 갖지 않을 수 없는 制限性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 경제건설 등등의 여러 動員목표는 그 성취를 위한 誘因動機가 각각 달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主体思想의 注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 이렇게 雜多한 動員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그중 어느 한가지의 목표도 달성되지 않았다는 反證이다.

金日成이 最惡의 政治的 破綻을 모면하고 있는 것은 그가 쌓아온 엄청난 힘이 그나마 動員體制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動員體制로서의 위기는 金日成이 죽은 후 필연적으로 나타날 힘의 空白과 函數關係를 갖지 않을 수 없고 承繼危機도 이와 無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註 解

- 註 1, 李啓熙, "共產圈의 政權承繼에 관한 研究" 北韓, 1977.4月号, P. 193.
- 註 2,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說明은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 註 3, Rush, op. Cit, P. 28.
- 註 4,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P.268.
- 註 5, Rush, P.92-93.
- 註 6, Conrad Brandt, et.al (ed),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422-439.
- 註 7, Robert A Bowie and John K. Fairbank, Communist China 1955-1959,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P.278.
- 註 8, Edgar Snow, The Long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P.90.
- 註 9,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 Mao Er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P.193.
- 註 10, 拙稿, "中共의 새 指導体制의 分析" 國際問題, 1977.10月号, PP.55-56.

- 註 11,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NQ 90, Selections from Chairman Mao, Myron Rush, Loc.Cit, P.253, 註4에서 再引用.
- 註 12, 權威 (authority)와 權力 (Power)의 개념에 대해서는 Peter Blau, "Critical Remarks on Weber's Theory of Autho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II, NQ 2 (June 1963), PP. 306-308
- 註 13, 毛沢東의 個人崇拜와 관련된 카리스마의 屬性에 대해서는 拙稿 "毛沢東의 카리스마 研究" 政經 研究, 1976年10月号, PP.66-87 .
- 註 14, Snow, Loc.Cit, P.169
- 註 15, Snow, P.170
- 註 16, Snow, P.89.
- 註 17, Harrison E. Salisbury, To Peking and Beyond, The New York Times Book Co, 1973.P.209
- 註 18,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e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1, PP.14-16 .
- 註 19, Talcott Parsons, "Authority, Legitimation, and Political Action," in Carl J. Friedrich ed., Author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 205.

註 20, Richard Merelman, "Learning and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t. 1966, PP. 557-561.

註 21, Chalmers Johnson, "The Changing Nature and Locus of Authority in Communist China," in John M.H. Lindbeck ed., China: Management of a Revolutionary Socie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1. PP. 54-59.

註 22, Johnson, 上掲書, PP. 54-59 (Passim)

註 23, Johnson, 上同, P. 39.

註 24, 金甲喆, 北韓政治 이데올로기 分析: 主体思想을 中心으로 서울, 서향각, 1977. P. 62.

註 25, 毛沢東 權威의 日常化, 体制化와 그의 카리스마의 關係에 대해서는 拙稿, "카리스마 毛沢東 研究," 政經研究, 1976年 10月号, PP. 66-77.

